

농업·농촌경제동향
1999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월)로 나누어 작성되고 해당 월의 15일에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전망/관측”)

동향분석팀: 성명환 / 채성훈

연락처: 3299-4366 / 팩스: 965-4396

목 차

< 요약 >

I. 국제경제 동향	1
1. 경제성장	1
2. 교역량, 환율 및 원유가격	2
3.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5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12
1. 주요국의 농업과 농정	12
2. 국제 농산물 협상	20
III. 국내경제 동향	25
1. 거시지표	25
2. 물가	29
3. 고용	34
IV. 농촌경제 동향	38
1. 농촌물가	38
2. 농가교역조건	41
3. 농업인력	42
4. 농산물 수출입	44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49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49
2. 채소류	55
3. 과일류	61
4. 축산	65

V. 농정 이슈	71
○ 1999년 3/4분기 농업 관련 주요 보도 현황	71
○ 1998년 농가경제 동향	75
○ 유가 상승이 시설원예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75
○ 일본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75
○ 최근 미국의 가뭄과 쌀 수급 전망	75

< 요약 >

I. 국제경제 동향

- 1999년 2/4분기 이후 세계경제는 비교적 건실한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미국의 경제성장이 계속 이어갈 전망이며, 일본, EU 등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도 경기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 성장률은 1998년 1.8%에서 2.6%로 상승할 전망이다. 2000년에도 1999년보다 약간 높은 2.8%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교역량은 중남미·러시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일부 아시아국가들의 수입수요 증가와 유럽의 경기호전에 따른 수출회복으로 1999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2.8%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환율은 일본의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인 엔화 강세가 예상됨.
- 최근 원유가격은 산유국들의 감산합의에 대한 착실한 이행과 아시아지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국제 원유가는 최근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비 OPEC 산유국의 원유증산과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석유소비국의 유가상승 견제노력으로 20 달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세계 곡물수급 상황은 생산량의 감소, 소비량의 증가, 기말재고량의 감소가 전망되나 전체 곡물수급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소맥과 옥수수는 주요 생산국의 생산 감소와 재고량 감소가 전망됨.
- 1999년 상반기까지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로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미국 동부지역의 가뭄과 폭염으로 소맥과 대두가격이 상승함. 중·단립종 쌀 가격은 미국의 재고량 급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하락추세로 반전됨.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 미국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수입이 1997년 이후 계속 감소함. 농산물가격 저하 원인으로서는 지난 3년간 연속적인 풍작에 의한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세계적인 경지침체에 의한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에서 미 상원은 76.5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농가구제 법안을 가결함.
- EU는 무역자유화의 확대와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 세계무역의 확대, WTO 체제를 강화하고 기존의 규칙을 검토하여 다자체제를 증진, 국제적 경제환경에의 WTO 대응성을 증진,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WTO 체제를 발전을 위한 차기 협상전략을 수립함.
- 일본 농림성은 쌀 작황지수 조사결과 쌀 풍작으로 재고과잉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1999년산 쌀 생산량은 생산계획보다 40만톤 정도의 증산이 예상되어 2000년 재고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7월에 제정된 새로운 농업기본법을 근거로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품목별 생산대책의 추진, 식료자급률 결정 및 중산간지역 직불제 도입이 포함됨.
- WTO 제20차 농업위원회(1999. 9. 28~30) 공식회의에서 각국의 농업협정 이행 통보 안에 관해 논의함. 비공식 회의인 분석 및 정보교환 작업(AIE)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관세율 쿼터(TRQ)의 관리방식, 수출규제, 개도국 우대에 관해서도 논의함.

III. 국내경제 동향

- 1999년 8월 중 실물경제지표는 생산과 소비가 2/4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조업 평균가동율은 78.7%에 이르러 전월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3/4분기 전체로는 상승추세에 있음.

- 각 연구기관별 향후 전망은 경제성장은 2/4분기말 수정 발표보다 상향조정하고 실업률은 소폭 하향 조정하였음. 경상수지의 흑자액은 기존 발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수정방향은 연구기관별로 상이함.
- 연간 경제성장률에 대하여는 LG경제연구소가 5.6%, 삼성경제연구소가 8.2%, 현대경제연구소가 7.1%로 발표하는 등 모든 연구기관이 5%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한국은행은 8.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데다 활발한 생산과 출하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보험세를 나타냈음. 이중 1999년 3/4분기 생산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9% 하락하였고, 소비자물가는 0.7% 소폭 상승하였음.
- 3/4분기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5.8% 상승하였고 공산품은 2.8%, 전력·수도·가스는 1% 하락하였음.
-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농림수산품이 5.7%, 공업제품이 1.2% 상승하였고, 서비스는 1.2% 감소하였음.
- 소비관련지표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소비심리가 급속히 호전되어 전년 8월대비 85.7% 상승한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
- 1999년 8월중 실업률은 제조업의 생산 및 가동율 상승에 따라 전월대비 0.5% 하락한 5.9%를 나타냄. 경제활동인구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8월중 21,767천명이며, 전월보다 140천명 감소하였음.

IV. 농촌경제 동향

- 1999년 8월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두류가 전년동월대비 29.4% 상승한 외에 가중치가 높은 청과물, 축산물 등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11.6%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는 가축류의 큰 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농업용품의 가격하락과 가계용품 가격의 안정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4.5% 증가에 그쳤음.

- 8월중 농가교역조건은 농가판매가격지수가 농가구입가격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결과 전년동월대비 6.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농림업 취업자수는 4월과 5월에 비하여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을 비롯한 도시부문의 취업기회 확대로 전년동월대비로는 4.4% 감소한 2,516천 명임. 귀농가구수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3,475 호이며, 8월 들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29.3% 감소하였음.
- 농림축산물 수출은 원화절상의 영향으로 8월까지 누계기준 금액과 물량이 각각 3.9%, 8.7% 감소하였음. 돼지고기, 채소류, 김치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실류와 가공식품은 주 수출시장인 러시아와 동남아의 경기회복이 미진하여 수출액과 물량이 전년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음.
- 농림수산물의 수입은 소득과 소비성향의 상승으로 육류 및 열대과실의 소비가 증가하여 8월누계기준 수입액은 11.7%, 수입량은 19.8% 증가하였음. 곡물류는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국제곡물가격 하락 및 원화강세의 영향으로 수입금액은 14% 감소하였음.

V.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 작년의 전반적인 흉작으로 1/4분기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았던데 반하여, 2/4분기에는 1999년의 기상조건이 양호하여 특히, 채소류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으나 3/4분기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함.
- 산지 소값 및 성돈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크게 상승함.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품 목	단 위	1998(3/4) (A)	1999(2/4) (B)	1999(3/4) (C)	증감율 (%)		비 고
					C/A	C/B	
일반미	원/80kg	152,867	161,500	165,633	8.4	2.6	호남미
보 리	원/70kg	75,533	67,167	80,500	6.6	19.9	쌀보리
콩	원/70kg	152,833	202,933	221,067	44.6	8.9	국산 백태
감 자	원/20kg	13,033	26,633	9,500	-27.1	-64.3	
고구마	원/15kg	19,167	20,833	13,800	-28.0	-33.8	
배 추	천원/5톤트럭	3,660	1,197	2,672	-27.0	123.3	
무	천원/5톤트럭	3,373	2,320	2,453	-27.3	5.7	
마 늘	원/kg	3,209	1,988	1,732	-46.0	-12.9	난지형
양 파	원/kg	382	479	354	-7.3	-26.1	
대 파	원/kg	784	602	957	22.1	59.0	
건고추	원/600g	3,962	5,018	4,133	4.3	-17.6	화건
사 과	원/15kg	32,901	38,429	22,752	-30.8	-40.8	후지
배	원/15kg	31,872	60,716	75,710	137.5	24.7	신고
한 우	천원/500kg	1,647	2,082	2,544	54.5	22.2	큰소(수)
성 돈	천원/100kg	180	206	217	20.3	5.1	
쇠고기	원/500g	6,735	6,539	7,305	8.5	11.7	
돼지고기	원/500g	2,639	3,506	3,897	47.7	11.2	
닭고기	원/kg	3,240	3,078	3,021	-6.7	-1.8	
계 란	원/10개	1,019	1,065	936	-8.1	-12.2	

주: 1) 도매가격 상품 기준(한우와 성돈은 산지가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은 소비자가격)

2) 1999년 3/4분기 축산물의 가격은 7월과 8월의 평균가격임.

Ⅵ. 농정 이슈

- 1999년 3/4분기 농업 관련 주요 보도 현황
 - 태풍의 영향으로 강원·경기북부의 농작물 침수, 충청·경남북 지역의 낙과피해, 전국적인 수확기 벼 도복피해 등 농작물 피해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고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상문제가 대두됨.
- 1998년 농가경제 동향
 - 1998년의 농가호당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12.7% 감소한 20,494천원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농업경영비는 증가한 반면에 도시가계의 소득감소에 따른 농산물의 소비감소로 농가의 농업수입이 줄어들어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2.2% 감소한 8,955천원임.
- 유가 상승이 시설원예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유가상승으로 시설원예의 재배포기, 저온재배, 재배시기 조절 등에 의한 생산량 감소로 일부 품목의 경우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며, 특히, 수출물량의 지속적인 확보가 불투명하여 신선농산물의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
- 일본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 일본은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 방안을 4년간의 검토를 거쳐 8월에 확정하였음. 중산간지역 직불제의 지급요건으로 생산활동과 연계하고, 지급대상은 경지면적을 단위로 하고 있으며, 쌀·맥류·대두 등의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최근 미국의 가뭄과 쌀 수급 전망
 - 미국은 8월말 현재 27개 주를 농업피해지역으로 지정하여 긴급저리자금의 대부 등 구제조치를 취함. 가뭄에 대한 피해액을 농산물 수입의 감소와 추가적인 부담(사료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11억달러로 추산함. 1999/00 생산증가와 기말재고량의 증가로 장립종의 재고율은 9.2%에서 23.5%로, 중·단립종은 13.2%에서 21.9%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I. 국제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999년 세계경제는 미국이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일본, EU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중남미의 브라질 등은 외채위기와 국제자본시장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 1999년 2/4분기 이후 세계경제는 비교적 건실한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미국의 경제성장이 계속 이어갈 전망이며, 일본, EU 등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도 경기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 성장률은 1998년 1.8%에서 2.6%로 상승할 전망이다. 2000년에도 1999년보다 약간 높은 2.8%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1999년 1/4분기에 4.3%에 달하였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4분기에는 1.6%로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연평균 4%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며, 재정흑자는 사상최대인 1,15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 일본은 1998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1999년에는 0.8%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1/4분기중 2%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저금리와 재정적자로 경제회복을 위한 더 이상의 금융 및 재정정책을 실시하기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경제성장세의 유지는 내수 확대에 달려 있으나 최근 엔고 및 유가급등으로 경기회복세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 EU지역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각국 재정정책의 폭이 좁아졌지만 역내 교역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저금리와 유로화의 약세로 소비자 수요와 수출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 태평양연안국은 1997년 외환위기로 1998년 성장률이 급감했으나, 1999년에는 외환위기가 다소 진정되면서 회복세로 반전되어 1.4%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홍콩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경상수지

개선, 통화 안정, 인플레이션 완화 등 경기회복 증후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한국과 태국은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을 이행함으로써 회복세가 가시화됨.

- 중국은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및 내수증대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1999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7.2%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경제는 브라질 외환위기로 인한 고금리, 재정긴축에 따른 내수위축,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2.3%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고 실질 이자율도 하락하고 있어 2000년에는 경제가 회복될 전망이다.
- 러시아는 재정적자의 지속, 금융권의 부실채권 급증, 경제정책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물가 및 환율이 급등하고 내수가 급감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주요 동구권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됨.

2. 교역량, 환율 및 원유가격

세계 교역량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기호전에 따라 안정적인 상승추세에 있으며, 점차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환율은 일본의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인 엔화 강세가 예상

2.1. 교역량

- 세계 교역량은 중남미·러시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일부 아시아국가들의 수입수요 증가와 유럽의 경기호전에 따른 수출회복으로 1999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2.8%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원자재, 연료 및 에너지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공산품은 전년 증가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GDP 기준)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세계 ¹⁾	3.5 (3.5)	3.4 (3.4)	1.8 (1.8)	2.6 (1.8)	2.8 (1.9)	3.0 (2.7)
선진국	3.0	3.0	2.2	2.6	2.2	2.3
미국	3.4	3.9	3.9	4.1	2.0	1.9
일본	5.2	1.4	△2.9	0.8	1.1	2.1
EU	1.9	2.5	2.7	2.1	2.6	2.4
개도국	5.8	5.5	1.1	3.2	4.9	5.1
태평양연안국 ²⁾	6.5	5.4	△4.5	1.4	4.0	5.0
한국	7.1	5.5	△5.9	2.5	4.8	5.6
중국	9.7	8.8	7.8	7.2	7.3	7.4
중남미	3.2	5.1	1.2	△2.3	3.7	5.1
동유럽	3.9	3.1	2.3	2.0	3.5	4.4
구소련연방	△3.4	0.7	△3.1	△1.2	2.3	3.2

주: 1) 세계 경제성장률에서 ()내의 수치는 DRI 전망치임.

2) 태평양연안국에는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및 태국이 포함됨.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3rd Quarter, 1999.

DRI, *World Economic Outlook*, 3rd Quarter, 1999.

세계 교역량 증가율 및 환율 동향

단위: %

		1997	1998	1999 ¹⁾	2000
교역량	전체	10.5	2.9	2.8	5.2
	원자재	6.1	0.9	1.5	5.4
	연료·에너지	5.7	0.2	2.5	6.0
	공산품	11.9	3.6	3.1	5.0
환율	엔/달러	121.0	130.9	120.0	117.7
	마르크/달러	1.73	1.76	1.79	1.67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3rd quarter, 1999.

2.2. 환율

- 최근 미국은 고성장 지속, 물가안정, 채권가격 상승 등으로 해외자본이 유입되면서 미국 달러화가 강세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대규모 무역수지 적

자누적, 유로화 출범에 따른 상대적 수요감소 등으로 향후 약세로 전망됨.

- 일본의 경기회복으로 엔/달러 환율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엔화 강세가 예상됨.
- 마르크/달러 환율은 독일 경제의 성장을 둔화, 코소보 사태의 영향, EU 지역의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이나 2000년부터는 강세로 바뀔 전망이다.

2.3. 원유가격

최근 원유가격은 산유국들의 감산합의에 대한 착실한 이행과 아시아지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국제 원유가는 최근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비 OPEC 산유국의 원유증산과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석유소비국의 유가상승 견제노력으로 20달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1999년 초에 배럴당 12달러 내외에 머물던 국제 유가(서부텍사스 중질유, WTI 기준)는 지난 3월 OPEC 감산 합의 이후 급등세로 반전하며 9월 평균 23달러선까지 돌파하였으나, 10월들어 21달러로 하향세를 보임.
 - 최근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은 1999년 4월부터 시작된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90% 이상 충실히 이행되고 있고, 아시아지역 경제의 회복으로 원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OPEC 등 산유국들이 2000년 3월말까지 감산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시장참여자들의 투기적 매수세까지 등장하여 유가 급등세를 부추기고 있음.
 - 우리 나라 원유 도입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 두바이산 원유 가격도 연초 10달러 수준에서 배럴당 20달러선까지 급등함.
- 향후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정책 고수, 주요 원유수입국인 아시아 및 유럽의 경제회복 등으로 상승요인이 있는 반면, 비 OPEC 산유국들의 증산과 폐쇄유전의 재가동, 그리고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의 유가상승 견제

노력이 약세요인으로 작용하여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20달러 수준의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원유 가격 동향 및 전망

단위: 달러/배럴

	1999. 2	1999.8	1999. 9	1999. 10	2000 ¹⁾
WTI 유가	11.98	21.19	22.82	21.00	20.51
브렌트 유가	10.49	20.45	22.97	20.76	22.20
두바이 유가	10.07	19.40	22.86	19.99	-

주: 1) 2000년 국제유가전망에서 WTI유가는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의 1999. 9월초에 발표한 전망치 기준이며, 브렌트 유가는 세계에너지연구소(CGES)의 9월 중순에 발표된 전망치 기준임.

자료: 한국석유공사.

3.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3.1. 세계의 주요곡물 수급 상황

최근의 세계 곡물수급 상황은 생산량의 감소, 소비량의 증가, 기말재고량의 감소가 전망되나 전체 곡물수급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소맥과 옥수수는 주요 생산국의 생산 감소와 재고량 감소 전망

전체 곡물

- 1999/00년도 세계곡물 생산량은 전월 예측치 대비 쌀과 소맥이 약간 늘고 옥수수와 대두가 줄어들어 전월 예상치 대비 0.4% 감소한 18억 3,170만톤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전년대비 1.6% 감소할 전망이다.
- 1999/00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월보다 90만톤 늘어난 18억 5,350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0.1% 증가할 전망이다.
-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여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6.4% 감소, 전

월대비 0.7% 증가한 3억 1,690만톤으로 전망됨. 세계 곡물 재고율은 17.1%를 유지할 전망임.

세계 전체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 톤

	1997/98 실적치	1998/99 추정치	1999/00 전망치		변동율(%)	
			1999. 8월	1999. 9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1,876.6	1,861.7	1,839.5	1,831.7	△1.6	△0.4
공급량	2,169.9	2,190.2	2,169.2	2,170.4	△0.9	0.1
교역량	250.1	250.4	253.2	253.1	1.1	0.0
소비량	1,841.4	1,851.6	1,854.4	1,853.5	0.1	0.0
기말재고량	328.4	338.6	314.8	316.9	△6.4	0.7
(재고율)	(17.8)	(18.3)	(17.0)	(17.1)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54, September 10, 1999.

쌀

- 1999/00년도 쌀 생산량은 전월대비 0.2%, 전년대비 1.3% 증가한 3억 9,200만톤으로 전망되고, 소비량은 전월과 비슷한 3억 9,360만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수준이지만 전월대비 5% 늘어난 5,050만톤으로 전망됨. 전월대비 재고량 변화를 국가별로 볼 때 중국은 10.3% 늘어날 전망이지만 미국은 감소할 전망임.

소맥

- 1999/00년도 소맥 생산량은 전월 예측치 대비 0.2% 증가, 전년대비 1.9% 감소한 5억 7,690만톤이나 소비량은 전월대비 0.1% 증가한 5억 8,830만톤으로 전망되어 소비량이 생산량 수준을 훨씬 상회할 전망임.

- 기말재고량은 전월대비 0.5%, 전년대비 8.5% 감소한 1억 2,440만톤이 될 전망이다. 특히, 유럽의 기말재고량이 전년대비 23.4%, 전월대비 3.1% 감소한 1,570만톤으로 1998/99년도 재고량 수준의 77%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옥수수

- 1999/00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유럽지역의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생산감소로 전년대비 1.8%, 전월대비 1.3% 감소한 5억 9,180만톤으로 전망됨. 반면, 소비량은 전년대비 1.3%, 전월대비 0.1% 늘어난 5억 9,220만톤으로 생산량 수준을 약간 상회할 전망이다.
- 전월대비 중국의 재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감소로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0.4%, 전월대비 0.6% 감소한 1억 43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대두

- 1999/00년도 대두 생산량은 전월 및 전년대비 약간 감소한 1억 5,500만톤으로 전망됨. 소비량은 1억 5,530만톤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년대비로는 0.6% 증가한 수준임.
- 기말재고량은 전월대비 7.8%, 전년대비 1.7% 감소한 2,380만톤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의 재고량이 전월대비 15% 감소할 전망이어서 세계 대두 재고량이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3.2. 국제곡물가격 동향 및 전망

1999년 상반기까지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로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미국 동부지역의 가뭄과 폭염으로 소맥과 대두가격이 상승함. 중·단립종 쌀 가격은 미국의 재고량 급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하락추세로 반전됨.

쌀

- 중립종(자포니카 계) 쌀의 국제가격은 1998년 9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9년 7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톤당 556.66달러를 기록함. 이후 조금씩 하락하여 9월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28.5% 상승, 전월대비 1.8% 하락한 톤당 543.43달러 수준임.
- 중·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최근 미국의 재고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미국의 쌀 수확이 시작되는 9월까지 강세가 지속되었음. 앞으로도 당분간 이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 현재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은 전년대비 18.1%, 전월대비 5.6% 하락한 톤당 239.33달러 수준임. 앞으로도 세계 쌀 생산증가와 재고량 증가가 전망되어 향후에도 장립종 쌀 가격은 약세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소맥

- 소맥의 국제가격은 1999년 7월까지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반전하여 1999년 9월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6.4%, 전월대비 2.2% 상승한 톤당 130.42달러임.
- 1998년 낮은 국제가격의 영향으로 식부면적이 감소하여 생산이 감소하고,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전망이다. 또한, 기말재고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소맥의 국제가격은 약상승세로 전망됨.

옥수수

- 옥수수의 국제가격은 1997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1999년 9월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8.5%, 전월대비 3% 하락한 톤당 91.13달러임.
- 생산 감소, 소비량 증가, 기말재고량의 증가 등 옥수수 수급의 불안정 요인이 있으나 향후 국제가격은 보합세가 전망됨.

대두

- 대두의 9월 평균 국제가격은 전년대비 21.8% 하락하였으나 8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현재 톤당 191.64달러 수준임.
- 1999년 가뭄으로 생산 감소가 전망되고 재고량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향후 대두의 국제가격은 약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의 재고량이 전월대비 15% 줄어들 전망임.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곡물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품 목	1996	1997	1998	1999		변동률(%)	
				8월	9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소맥	187.86	153.10	119.90	127.59	130.42	6.4	2.2
옥수수	158.84	118.41	102.66	93.93	91.13	△8.5	△3.0
대두	288.20	291.54	234.33	183.22	191.64	△21.8	4.6
쌀(중립종)	468.13	420.92	430.70	553.35	543.43	28.5	△1.8
(장립종)	415.81	305.53	309.56	253.50	239.33	△18.1	△5.6

주: 소맥은 US Portland, White Wheat 1등급 가격이며, 옥수수와 대두는 US Gulf 2등급 가격이고, 쌀 중립종은 U.S. California, Medium 1등급, 장립종은 태국 1등급 가격임.

자료: 한국경제신문, UNICOM.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7/98 실적치	1998/99 추정치	1999/00 전망치		변동률(%)	
			1999. 8월	1999. 9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51.2	53.7	50.4	52.0	△3.2	3.2
생산량	386.1	386.9	391.2	392.0	1.3	0.2
중국	140.5	135.0	138.0	138.0	2.2	0.0
인도네시아	30.6	32.1	32.1	32.1	0.0	0.0
베트남	19.1	19.3	19.4	19.4	0.5	0.0
미국	5.8	6.1	7.0	6.9	13.1	△1.4
수입량	24.5	23.9	22.2	22.5	△5.9	1.4
인도네시아	6.1	3.2	3.0	3.0	△6.3	0.0
일본	0.5	0.8	0.7	0.7	△12.5	0.0
중국	0.3	0.2	0.4	0.4	100.0	0.0
이용량						
소비량	383.5	388.6	393.5	393.6	1.3	0.0
중국	135.9	136.8	138.0	138.0	0.9	0.0
인도네시아	35.2	35.5	35.7	35.7	0.6	0.0
일본	9.2	9.2	9.1	9.1	△1.1	0.0
수출량	27.0	24.4	23.9	23.9	△2.0	0.0
태국	6.4	5.7	5.7	5.7	0.0	0.0
베트남	3.8	3.7	3.9	3.9	5.4	0.0
미국	2.8	2.8	2.8	2.8	0.0	0.0
기말재고량	53.7	52.0	48.1	50.5	△2.9	5.0
중국	26.7	23.2	19.5	21.5	△7.3	10.3
일본	3.1	2.4	1.6	1.6	△33.3	0.0
인도네시아	3.1	2.8	2.7	2.2	△21.4	△18.5
미국	0.9	0.7	1.9	1.5	114.3	△21.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54, September 10, 1999.

세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7/98 실적치	1998/99 추정치	1999/00 전망치		변동률(%)	
			1999. 8월	1999. 9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113.9	139.2	136.7	135.9	△2.4	△0.6
생산량	609.9	588.8	575.9	576.9	△1.9	0.2
중국	123.3	110.0	115.0	115.0	4.5	0.0
미국	67.5	69.4	63.0	62.8	△9.5	△0.3
EU-15	94.2	103.5	96.5	96.4	△6.9	△0.1
수입량	123.0	117.1	120.6	121.3	3.6	0.6
EU-15	25.8	23.8	24.5	25.2	5.9	2.9
북아프리카	17.7	16.7	16.2	16.7	0.0	3.1
브라질	6.2	6.3	6.5	6.5	3.2	0.0
이용량						
소비량	584.6	591.5	587.6	588.3	△0.5	0.1
중국	114.9	116.0	117.0	117.0	0.9	0.0
EU-15	82.6	86.6	88.1	88.6	2.3	0.6
미국	34.2	37.8	36.2	36.3	△4.0	0.3
수출량	122.9	118.6	121.3	122.4	3.2	0.9
EU-15	36.0	36.3	37.1	37.6	3.6	1.3
미국	28.3	28.4	31.3	30.6	7.7	△2.2
캐나다	20.1	14.5	16.5	17.5	20.7	6.1
기말재고량	139.2	135.9	125.0	124.4	△8.5	△0.5
중국	33.4	28.1	27.1	27.1	△3.6	0.0
EU-15	16.1	20.5	16.2	15.7	△23.4	△3.1
미국	19.7	25.7	24.1	24.5	△4.7	1.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54, September 10, 1999.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7/98 실적치	1998/99 추정치	1999/00 전망치		변동률(%)	
			1999. 8월	1999. 9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92.9	86.4	97.3	104.7	21.2	7.6
생산량	573.4	602.8	599.4	591.8	△1.8	△1.3
미국	233.9	247.9	242.9	238.3	△3.9	△1.9
중국	104.3	133.0	128.0	125.0	△6.0	△2.3
EU-15	38.5	34.5	35.7	35.8	3.8	0.3
수입량	71.1	74.8	72.2	72.1	△3.6	△0.1
일본	16.4	16.5	16.3	16.3	△1.2	0.0
EU-15	10.2	11.2	11.1	10.8	△3.6	△2.7
한국	7.5	7.8	8.3	8.3	6.4	0.0
이용량						
소비량	580.0	584.5	591.8	592.2	1.3	0.1
미국	185.1	188.1	190.1	189.4	0.7	△0.4
중국	117.4	117.3	118.8	120.0	2.3	1.0
EU-15	38.8	37.7	38.3	38.4	1.9	0.3
수출량	71.5	75.5	76.1	75.2	△0.4	△1.2
미국	38.2	50.4	48.9	47.0	△6.7	△3.9
아르헨티나	12.2	8.0	9.5	9.0	12.5	△5.3
중국	6.2	3.5	3.5	5.0	42.9	42.9
기말재고량	86.4	104.7	104.9	104.3	△0.4	△0.6
미국	33.2	43.2	47.8	45.3	4.9	△5.2
중국	26.0	38.6	36.2	38.9	0.8	7.5
EU-15	4.3	3.7	3.1	2.8	△24.3	△9.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54, September 10, 1999.

세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7/98 실적치	1998/99 추정치	1999/00 전망치		변동률(%)	
			1999. 8월	1999. 9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13.5	21.4	24.3	24.2	13.1	△0.4
생산량	157.8	158.0	157.2	155.0	△1.9	△1.4
미국	73.2	75.0	78.1	75.6	0.8	△3.2
브라질	32.5	31.0	30.5	30.5	△1.6	0.0
아르헨티나	19.2	19.0	17.0	17.5	△7.9	2.9
수입량	39.2	39.5	41.4	41.4	4.8	0.0
EU-15	16.3	16.1	16.4	16.4	1.9	0.0
일본	4.9	4.7	4.7	4.6	△2.1	△2.1
중국	2.9	3.7	4.4	4.4	18.9	0.0
이용량						
소비량	148.6	154.3	155.6	155.3	0.6	△0.2
미국	47.8	48.8	49.1	48.8	0.0	△0.6
중국	17.5	17.3	17.3	17.3	0.0	0.0
EU-15	17.0	16.3	16.4	16.4	0.6	0.0
수출량	40.4	40.5	41.6	41.4	2.2	△0.5
미국	23.7	21.9	24.9	24.4	11.4	△2.0
브라질	8.8	9.5	9.3	9.3	△2.1	0.0
아르헨티나	3.2	3.3	2.2	2.5	△24.2	13.6
기말재고량	21.4	24.2	25.8	23.8	△1.7	△7.8
미국	5.4	9.9	14.7	12.5	26.3	△15.0
아르헨티나	7.1	6.0	4.1	4.0	△33.3	△2.4
브라질	6.5	5.8	4.8	5.1	△12.1	6.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54, September 10, 1999.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1. 주요국의 농업과 농정

1.1. 미국

1.1.1. 시장가격의 하락과 가뭄으로부터의 농가구제

- 시장가격의 하락에 의해 미국 농가수입이 1997년 이후 감소함.
 - 농산물 가격 저하의 원인으로서 3년 연속 세계적인 풍작에 의한 농산물의 공급과잉
 -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의한 농산물 수출의 감소(1990년대 최대시와 비교하여 1998년 중국, 한국, 일본으로의 농산물 수출액이 각각 22%, 42.3%, 49.5% 감소함)
 -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신흥 수출국과의 경쟁 격화와 유전자변형작물(GMO)의 농업기술 향상에 기인한 생산성 향상
 - 이란과 쿠바 등 정치적인 금수조치에 의한 시장 축소와 수입국의 고관세와 수입제한조치
 - 1996년 농업법에서 생산제한정책이 폐지됨으로써 국내 생산량의 증가
- 가뭄의 피해상황과 농가구제책
 - 8월말 현재 미국 농업부는 27개주를 농업피해지역으로 지정하여 긴급 저리자금대부 등의 구제조치를 취함.
 - 물이 부족한 11개 주에는 물 보전대책을 위하여 약 1,420만 달러를 제공하고 피보험작물 이외의 작물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제공함.
 - 미 농업부는 가뭄에 대한 피해액을 농산물 판매 수입의 감소와 추가적인 부담(사료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11억 달러로 추산함.
 - 이러한 상황에서 미 상원은 76.5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농가구제 법안을 가결하고 9월부터 하원에서 심의가 시작된 상황임.

- 1999년 농가수입은 최대치 예측
 - 농산물 가격의 저하로 농가의 농업소득은 감소하고 있지만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불액이 증가하고 있고, 만일 의회의 긴급 농업지원액이 부가된다면 1999년의 농가소득은 과거 최고인 611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민간연구소가 발표함.

정부로부터의 지불을 포함한 농가수입

단위: 10억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예측치)
농업수입	45.3	50.2	51.0	42.7	37.1
정부지출	7.3	7.3	7.5	12.2	24.0
농가수입	52.6	57.5	58.5	54.9	61.1

자료: 미국 농업부;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2. 농가교역조건의 악화 지속

- 1999년 9월 미국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반적인 농업투입재의 가격안정으로 큰 변동이 없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하락, 전월대비 1.0% 하락함.
 - 농산물 판매가격에 있어 곡물류의 경우 가뭄과 재고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1%, 전월대비 2.3% 상승하였고, 채소류는 전년동월대비 3.6% 하락, 전월대비로는 1.9% 상승하였음. 육류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최근에 하락세를 보인 반면 낙농품은 최근에 약상승세를 보임.
 - 농가구입가격에 있어 사료류와 비료류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정체상태이고, 농약류와 연료비는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7% 하락, 전월대비 1.1% 하락함으로써 농가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남.
 - 1990-92년도를 기준으로 1997년 91.5, 1999. 9월에는 82.9로 계속적으로 하락함.

농가교역조건 변동추이

구 분	1997	1998. 9	1999		증 감 률 (%)	
			8월	9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	107	99	98	97	△2.0	△1.0
곡물류	157	88	87	89	1.1	2.3
채소류	111	111	105	107	△3.6	1.9
육 류	87	73	85	83	13.7	△2.4
낙농품	114	129	115	122	△5.4	6.1
농가구입가격지수	117	115	117	117	1.7	0.0
사료류	129	102	99	99	△2.9	0.0
비료류	125	110	103	103	△6.4	0.0
농약류	119	119	123	127	6.7	3.3
연 료	102	89	110	113	27.0	2.7
패리티 가격지수	91.5	86.1	83.8	82.9	△3.7	△1.1

주: 가격지수는 1990-92=100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USDA, *Agricultural Prices*, September 29, 1999.

1.1.3. 농산물 수출입 동향

- 1999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도 보다 31.2% 줄어든 1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곡류와 채소류 수입국들의 수입수요가 회복되었으나 육류, 기타 농산물의 수입수요가 크게 회복되지 않아 전년대비 8.8% 줄어든 49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농산물수입은 육류, 과실류, 채소류의 수입증가로 전년대비 1.3% 증가한 3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상위 5개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액을 보면 전년대비 일본이 11.3% 줄어든 84억달러, 캐나다가 3.2% 줄어든 68억달러, 한국이 2.6% 줄어든 22억달러, 대만이 19% 줄어든 16억달러이고 멕시코 만이 전년대비 4.1% 증가한 62억달러로 전망됨.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7	1998 (A)	1999 (B)	증감률(%) (B/A)
농 산 물 수 출 입	농산물수출	57,365	53,730	49,000	△ 8.8
	곡물류	16,368	13,961	14,400	3.1
	육류	4,438	4,507	4,200	△ 6.8
	과실류	4,261	3,977	4,400	10.6
	채소류	4,081	4,168	2,900	△ 30.4
	농산물수입	35,798	37,007	37,500	1.3
	곡물류	2,941	2,919	3,000	2.8
	육류	2,583	2,718	2,900	6.7
	과실류	3,773	3,982	5,300	33.1
	채소류	3,604	4,249	4,500	5.9
농산물 무역수지		21,567	16,723	11,500	△ 31.2
국 별 수 출 액	일 본	10,713	9,469	8,400	△ 11.3
	캐나다	6,620	7,022	6,800	△ 3.2
	멕시코	5,077	5,956	6,200	4.1
	한 국	3,293	2,258	2,200	△ 2.6
	대 만	2,588	1,975	1,600	△ 19.0

자료: USDA,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September 1999.

1.2. EU

1.2.1. 차기 협상전략 수립

- 차기협상의 주요 목적에 대한 인식
 - 무역자유화의 확대와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 세계무역의 확대
 - WTO 체제를 강화하고 기존의 규칙을 검토하여 다자체제를 증진
 - 국제적 경제환경에의 WTO 대응성(경제정책과 무역정책의 연계)을 증진
 -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WTO 체제를 발전
- 유럽공동정책(CAP)을 방어하고 주요 협상대상국들의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로 공격하는 전략을 수립

- 호주의 밀협회 등 케언즈 그룹의 품목 독점기관과 미국의 수출신용을 주요 공격대상으로 설정
 - 특히, 높은 국내가격과 낮은 국제가격의 차이를 농민들에게 직접 보전해주는 수출보조를 집중공격
 - 협상대상국들의 상응하는 대가 없이는 추가적인 수출보조의 감축을 불허
-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차기 WTO 협상에서 EU의 공동농업정책을 시대착오적인 무역왜곡정책으로 간주
- 관세인하, 국내지지 삭감 등 지지와 보호의 삭감을 확대할 것을 주장

1.2.2 EU 회원국간의 협상

-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은 무역자유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
- 프랑스가 주축인 보수적 회원국들은 현재의 공동농업정책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부적이고 강력한 역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1.2.3. 농업협정에 대한 분야별 전략

- EU는 일괄타결방식을 선호
 - 가능한 한 폭넓은 분야로 포괄협상을 선호
 - 농업, 서비스, 공산품에 대한 관세수준에 만족하여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꺼림.
 - 미국은 포괄협상방식에 의한 협상의 장기화를 우려하여 단기간(3년)에 타결이 가능한 분야만을 협상할 것을 주장
- 농산물의 세계무역 증진, 수출지원의 감축, 보조금의 감축(blue box 와 green box 재검토)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량안보, 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점을 무역기준에 반영할 것을 주장
-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의 필요성 인정

1.2.4 EU의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기본 방향

- EU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은 농업이 농촌지역의 경관과 농촌지역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경제활동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네 가지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기본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조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유대를 증진
 - 다양성 촉진, 구조개선, 신기술에의 접근성 증대를 통한 발전의 장애를 극복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농촌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를 유지

(이규천 작성)

1.3. 일본

1.3.1. 쌀 풍작과 쌀 재고과잉문제의 대두

- 농림성은 1999년산 쌀 작황지수를 지난 8월 15일 현재, 103으로 발표, 따라서 금년산 생산계획 878만톤 보다 40만톤 정도의 증산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의 쌀 소비량을 감안할 때 2000년 10월말 재고는 계획(189만톤)보다 70-100만톤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농림성은 1999년 생산조정면적을 과거 최대인 96만ha를 실시하였으나, 생산조정면적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쌀 수급조절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1999년산 자루미 입찰이 행해진 지난 8월 31일, 전품종 평균가격은 1998년산 2회째 입찰가에 비하여 가마당(60kg) 약 2,000엔, 즉 1할 가까이 하락하였음.

- 향후 작황지수는 더욱 올라갈 가능성도 비치는 가운데,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999년산 쌀의 과잉분을 「사료용으로 전환하여 주식용시장에서 격리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음.
- 당초 2000년도부터 생산조정에 사료용 쌀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을 1년 앞당겨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단지 사료용의 가격은 주식용의 10분의 1정도이기 때문에 농가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미지수이어서, 추가적인 재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1.3.2.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후속조치 추진

- 일본은 지난 7월, 21세기 일본 농정방향을 결정하는 새로운 농업기본법인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함(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농촌경제동향」1999 여름호 참조). 이에 근거하여 농림성은 기본법의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음.
- 후속 조치로서는 향후 5년간 실시해야 할 시책을 결정, 추진하는 것이며, 1차적으로는 2000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시책을 결정하는 것임. 중요한 것은 품목별 생산대책의 추진, 식료자급률 결정, 중산간지역 직불제 도입 등임.

1.3.3. 국내 생산체제의 구축과 품목별 생산과제

-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즉, 품목별로 생산노력목표의 수립과 그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즉,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품목별로 품질·원가 등 생산면에서 과제를 명확히 한 후, 과제가 해결된 경우 도달 가능한 국내 생산수준을 생산노력 목표로써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전국단계의 생산노력목표 수립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 등에 의한 지역단계의 생산노력목표의 수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제시하고 있는 생산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쌀
 - 생산성이 높은 영농의 전개(쌀·맥류·대두체계 및 고수의 부문을 조합한 복합경영의 도입, 직파 및 불경기재배의 도입에 의한 생산비의 절감)
 - 수급동향에 따른 양질미의 생산(산지·품종별로 시장평가를 근거한 품종선택)
 - 국산미의 안정공급체계 강화(산지 물류체계의 합리화와 광역적인 출하체계의 정비, 지역의 조건을 활성화한 특색있는 쌀의 생산판매)
- 맥류
 - 규모화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생산체계 정비(생산 확대, 경영주체 확보 등의 목표에 근거한 생산 전개, 차지·기계리스에 의한 전업농의 규모확대, 건조조제시설 정비)
 - 식품산업 수요에 대응한 생산(품질의 향상·안정을 위한 고품질 품종 육성·보급 및 재배기술 개선, 고품질 거래에 대응한 물류·품질분석 체계의 정비)
 - 안정적인 맥작 추진(이모작·윤작 등을 조합한 지역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작부체계의 도입·보급)
- 대두
 - 효율적인 생산체계의 정비(단수 향상과 생산 확대,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목표를 기초한 생산 추진, 경영주체 육성과 단지화에 의한 주산지의 형성)
 - 식품산업 등의 수요에 대응한 생산(식품산업과 산지가 일체화 된 품질평가, 국산 대두를 사용한 상품개발, 식품산업과의 계약재배·직거래 확대, 대두교부금제도 개선)
 - 생산의 안정화 (내냉성·병해충 저항성·기계화적성 등을 갖춘 신품종

육성·보급, 재배기술의 고위평준화)

○ 축산물·사료작물

- 안정적인 생산·경영관리 체제의 정비(사양관리 기술의 개선, 가축개량에 의한 생산 능력향상, 법인화 추진,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경영지원조직 확립)
- 사료자급률 향상(사료작물 생산기반의 강화, 일본형 방목 추진)
- 고품질·안전하고 특색있는 축산물 생산(국산품의 우위성을 살린 특색있는 축산물 생산, 생산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의 위생관리 철저)

○ 과수

- 성력·저비용 생산체제 정비(왜성재배, 과수원정비, 규모확대 추진)
- 품질 본위의 생산유통(고도의 집출하 저장시설 정비, 가공업과의 연계강화에 의한 새로운 과실가공품 개발)

○ 야채

- 국산 야채의 연간 안정생산체제 정비(기계화 일관체계의 도입)
- 수요를 반영한 야채 생산·유통(정품·안전지향의 선호 및 업무용 수요증대에 따른 저농약 야채·가공 적성품종의 생산)

○ 화훼

- 저비용·다품종 화훼생산공급체제 정비(성력 대량생산 기술의 도입·보급)
- 대량 수요에 대응한 유통체제의 정비(집출하 시설의 정비)

1.3.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 일본은 지난 8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음. 평지지역에 비하여 조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을 대상으로, 5년 이상의 영농을 조건으로 하여 평지지역과의 생산비 격차의 8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임.

- 지급요건으로 생산활동과 연계하고, 지급대상은 경지면적을 단위로 하고 있음. 대상면적은 90만ha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00억円 정도이며, 이를 국비 330억엔, 지방비 370억엔으로 분담하고 있음.
- 농가의 모럴 헤저드를 방지하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대상부락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부락협정)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음. 이것은 프랑스에서 금년 5월,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에 관한 국토계약 (CTE)」 제도를 참고한 것임.

(김태곤 작성)

2. 국제 농산물 협상 : 세계무역기구(WTO)의 논의

9월 28~30일에 열린 제20차 농업위원회 공식회의는 각국의 농업협정이행 통보 안에 관해 논의함. 분석 및 정보교환 작업(AIE)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관세율 쿼터(TRQ)의 관리 방식, 수출규제, 개도국 우대에 관해서도 논의

2.1.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 1999년 9월 28~30일에 열린 제20차 공식회의는 농업협정의 효과적인 규범 실천과 각 국의 이행 통보 안에 관해 논의함. 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 나라는 1998년도 이행 통보 안에 관한 각 국의 질의에 답변함.
- 우리 나라의 이행 통보 안에 관한 주요 질의는 다음과 같음.
 - 국내보조 중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의 생산액과 보조액에 관한 자료 요청(필리핀, 캐나다, 뉴질랜드)
 - 농업생산과 가공시설에 대한 보조의 허용대상 합치 여부(미국)
 - 쌀에 대한 AMS 계산에서 수매물량과 지지물량 사이의 관계(유럽연합,

미국)

- 주요 채소와 과실류를 대상으로 시행한 완충재고관리(buffer stock management) 정책의 허용대상 합치 여부(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과실과 화훼류의 포장, 운송 등 수출비용의 감축 운용상황(뉴질랜드)
- 우리 나라는 이상과 같은 질의에 답변하고 국내농업정책을 농업협정이 정한 규범 안에서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함.

2.2. 분석 및 정보교환(Analysis and Information Exchange: AIE)

- 1999년 9월 28~29일 오전까지 열린 비공식 AIE 회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관세율 쿼터(Tariff Rate Quota: TRQ)의 관리방식, 수출 규제, 개도국 우대에 관해 논의함.
- 미국은 제안서(AIE/64)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이 green box 조항(감축예외 조항)을 통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유럽연합 등은 일정한 수준의 국내생산이 국제 식량공급의 불안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며, 농업생산과 연계한 환경보전, 지역개발, 농촌사회의 활력 유지 기능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들은 무역 자유화가 식량접근을 높이기 때문에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업생산에 의해 생기는 환경오염과 같은 농업의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 태국은 개도국의 식량안보가 빈곤에서부터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함.
- 우리 나라는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제안에 동조를 표하고, green box 조항만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나라마다 다른 농업여건 속에서 무역 자유화가 비교역적 기능(NTCs)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실에 기초

한 접근과 신축적인 정부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함.

- 미국은 TRQ에 관한 제안서(AIE/52)를 통해 시장접근 물량에 대해 여러 나라들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쿼터내 관세율(in-quota tariff)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TRQ는 일시적·전환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투명한 TRQ 관리방식이 중요하다고 밝힘.
 -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미국의 주장 이외에도 무역을 왜곡하는 쿼터 관리 방식과 쿼터물량 충족(quota-fill)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함.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는 쿼터내 관세율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함.
 - 유럽연합은 농업협정이 TRQ 관리방식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TRQ 관리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강조함. 또한 쿼터 수입(rent)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경매제도(auctioning)가 유용하다고 제안함.
 - 우리 나라는 실제 시장접근 물량에 대한 보장이 시장조건과 품목의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국내 TRQ 운영 경험상 경매제도가 쿼터물량 충족에 적합하다고 밝힘.
 - 이러한 지적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경매제도가 수입감소 효과를 나타낸다고 지적함.
- 일본은 제안서(AIE/62)를 통해 지금의 농업협정이 수입국에 대해서만 관세인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수출국의 수출세와 수출제한 등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함.
 - 미국과 뉴질랜드는 국영무역제도가 무역왜곡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했고, 수출보조 폐지(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와 수출신용 폐지(호주, 유럽연합, 일본, 필리핀 등) 등도 제기됨.
- 쿠바 등 8개국(AIE/63)은 개도국과 선진국 농업구조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모리셔스(AIE/65)는 소규모 섬나라들의 특수한 농업여건을 소개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가 더욱 확대돼야 하며, 더 나은 시장접근 보장, 신축적인 정책허용 등을 주장함.

- 이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공감을 표시하였는데, 뉴질랜드 등 수출국들은 폭넓은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우리 나라와 노르웨이 등 수입국들은 수입개방의 확대는 어려움에 처한 개도국 농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함.

2.3. 관찰과 평가

- 회원국들이 우리 나라의 농업협정 이행 통보 안에 대해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많은 나라가 국내시장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AIE 논의를 시작한 1997년 3월 이후 1999년 9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비공식 회의를 가졌는데, 차기협상 이전의 AIE 작업은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마감됨.
- AIE 논의를 통해 모두 34개 회원국이 65개의 비공식 제안서를 제출함. 이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22개 개도국이 제출한 제안서는 11개(전체의 17%)에 그쳐, AIE 작업에서 주로 선진국들이 자국의 입장을 개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AIE 논의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사항은 비교역적 기능을 포함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써 10개국이 15개의 제안서를 제출함. 그밖에도 개도국 우대조치에 관한 내용과 TRQ의 관리방식, 그리고 국내보조에 관한 논의가 주류를 차지함.
- 우리 나라도 비교역적 기능에 관해 1개의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음.

(임송수 작성)

Ⅲ. 국내경제 동향

1. 거시지표

1999년 상반기 국내경제는 안정적인 물가수준과 생산확대로 2/4분기중 9.8%의 성장을 달성하였음. 최근 유가인상과 급속한 소비심리 확대로 물가상승이 우려되나 아직 실질경제성장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1999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하여 1998 4/4분기의 5.3% 감소에서 큰 폭으로 성장함.
 - 수출이 1/4분기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1/4분기 중 8.8%에 머물던 내수도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20.6% 성장함으로써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살아나 경제성장이 가속되고 있음.
 -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설비투자, 민간소비, 수출이 안정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나 최근 국내외 금융의 불안과 엔고에 따른 2000년 설비투자 도입의 불확실성, 유가급등 등 불확실한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 1999년 8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9.9% 증가하여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생산이 확대됨. 그러나 7월의 33.1%보다는 그 증가세가 약간 둔화됨
 -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수출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공업 등 전산업으로 경기회복이 확산되고 있음.
 - 특히,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는 150.5%,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150.3%, 가구 및 기타제조업은 44.6% 생산이 급증함.
 - 재고율은 2/4분기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따른 재고소진과 출하증가에 대비한 재고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
 - 평균가동율은 자동차, 운송장비 등이 7.6% 하락함에 따라 전월보다 소폭 낮아진 78.7%를 나타냄.

산업생산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1/4	2/4	3/4	4/4	1/4	2/4	7월	8월
GDP	△3.6	△7.2	△7.1	△5.3	4.6	9.8	-	-
생산	△6.2	△12.2	△9.5	△1.6	12.5	22.6	33.1	29.9
(반도체,자동차제외)	△10.0	△14.3	△14.6	△11.7	5.2	-	-	-
출하	△4.5	△11.8	△9.6	△2.2	14.1	24.4	33.0	31.2
(수출)	36.7	23.6	24.4	30.2	21.9	29.7	31.9	33.8
(내수)	△21.0	△27.0	△25.4	△18.5	8.8	20.6	34.4	28.2
재고	△4.6	△8.0	△10.9	△17.3	△18.6	△16.9	△15.2	△14.2
(전월비)	△7.3	△2.2	△3.9	△4.9	△8.9	△0.4	0.2	△1.3
재고율	115.7	115.9	108.0	94.2	85.3	77.2	72.7	73.9
제조업평균가동률	68.8	67.0	66.7	69.9	71.3	76.8	80.8	78.7

자료: 재정경제부

- 경제활동별 전산업의 경제성장은 1998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반전되어 전년동기대비 1999년 1/4분기 4.7%, 2/4분기에는 10.4% 성장함. 농림어업은 1/4분기 7.6% 감소에서 2/4분기 중 4.9% 성장함으로써 성장세로 반전됨.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20.1%, 10.4%의 큰 폭으로 성장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1/4	2/4	3/4	4/4	연간	1/4	2/4
전 산업	△2.7	△6.8	△6.6	△5.0	△5.3	4.7	10.4
농림어업	6.2	△3.5	△7.0	△9.0	△6.3	△7.6	4.9
제조업	△4.6	△10.4	△9.1	△4.7	△7.2	10.7	20.1
서비스업	△4.5	△7.4	△6.2	△3.4	△5.4	6.5	10.4

자료: 재정경제부

- 1999년 5월중 총통화량(M2)의 증가율은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자금의 은행 저축성예금으로 이동함으로써 하락세에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섬.
- 은행의 전체 유동성을 나타내는 MCT+ 증가율은 4월 이후 하락하였으나 8월에는 7.7%로 상승함.
- 본원통화는 전월보다 소폭 증가하여 21.5조원을 기록함.

통화지표 (평잔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M ₁	10.8	5.6	10.3	14.1	17.3	17.2	14.7	19.6
M ₂ (총통화)	26.3	29.9	33.7	34.5	31.0	27.4	24.2	24.9
MCT	3.1	4.9	6.9	7.0	6.7	6.3	6.2	7.7
본원통화(조원)	20.2	21.5	20.9	21.0	20.9	20.9	21.3	21.5

자료: 한국은행

- 1999년 8월중 단기금리 안정 지속, 장기금리 상승 추세
- 콜금리는 8월 평균 4.7%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물가상승 및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리상승 기대가 확산되면서 장기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회사채수익률은 투신사의 회사채 환매자금 조달을 위한 보유채권 매각으로 전월의 8.6%에서 9.9%로 상승하였으며, CD 유통수익률 역시 5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함.

시중자금사정

단위: 월평균, %

	199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콜금리	6.0	5.0	4.9	4.7	4.7	4.8	4.8	4.7
CD유통수익률	7.0	6.7	6.9	6.2	6.2	6.3	6.8	7.2
회사채유통수익률	8.1	8.7	8.1	7.7	8.4	8.1	8.6	9.9

- 8월중 대미달러환율은 전년동월대비 7.9%% 절상된 1,199.8원을 기록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적정환율수준으로 회복해 가고 있음. 앞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 및 외국인 투자의 한국 이탈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기별 달러 환율

단위: 원(평균기준환율), %(전년동기동월대비)

	1998				1999			
	1/4	2/4	3/4	4/4	1/4	2/4	7월	8월
대미 환율	1,606.1	1,394.5	1,325.2	1,279.4	1,198.7	1,191.4	1,186.0	1,199.8
원화 절상률(%)	△86.2	△56.4	△47.5	△11.8	25.4	△14.6	△8.8	△7.9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 1999년 2/4분기 경제성장은 9.8%에 이르렀으며, 연간기준으로도 당초의 전망보다 높은 6-8%의 성장이 전망됨.
 - 경제성장은 최저 2.56%(WEFA)부터 최고 8.8%(한국은행)로 모든 기관에서 플러스 성장을 전망함.
 - 경상수지의 흑자규모는 196억 달러(KDI)부터 243억달러(LG경제연구소)로 전망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모든 기관이 2% 내외, 실업율은 6.4-6.8% 정도로 전망함.

연구기관별 경제 전망

구분	기관명	발표 시기	경제성장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	경상수지흑자 (억달러)	
			1999	2000	1999	2000	1999	1999	2000
국내 기관	한국개발연구원	7월	7.5	-	0.9	-	6.4	196	-
	한국은행	10월	8.8	6.4	0.8	3.8	-	210	86
	LG경제연구소	10월	5.6	5.3	1.8	3.2	6.6	224	124
	현대경제연구소	10월	7.1	-	0.8	-	6.8	214	-
	삼성경제연구소	10월	8.2	6.5	1.4	3.2	-	227	101
	한국경제연구원	9월	8.2	6.4	1.5	3.9	-	218	97
국외 기관	WEFA	5월	2.5	-	2.2	-	-	293	-

2. 물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압력이 우려되나 원화가치의 절상으로 일부분 흡수되었음. 생산자물가는 전분기 대비 0.1%, 소비자물가는 전분기 대비 0.3% 상승

- 1999년 3/4분기 중 생산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전력·수도·가스를 중심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1.9% 하락하였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0.1% 상승되어 안정세를 보임.
 - 하반기 이후는 엔고의 영향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압력 요인이 있을 전망이다.
-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5.8% 상승하였고 2/4분기 대비 2.9% 하락함.
 - 8월 중 농축산물 생산자물가는 수박($\Delta 24.1\%$)과 마늘($\Delta 2.3\%$)이 하락하였으나 무(23.6%), 배추(47.8%), 상추(215.1%)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로는 3.6% 상승하였음.
- 공산품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전년동기대비 2.8% 하락하였고 전기대비로는 0.3% 상승하였음.
 - 원자재 가격상승을 반영하여 원재료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2.6% 상승하였으나 중간재(6.8%), 최종재(10.2%)는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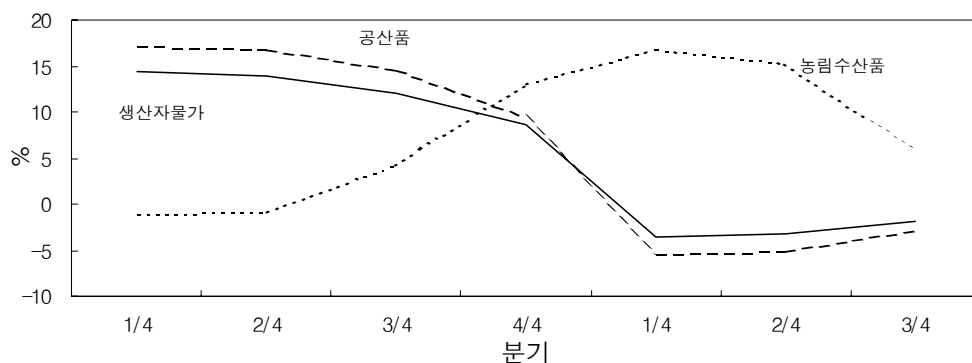
품목별 생산자 물가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998				1999		
	1/4	2/4	3/4	4/4	1/4	2/4	3/4
농림수산물	△1.1	△0.9	4.3	13.1	16.7	15.3	5.8
광 산 품	4.8	8.8	7.5	8.0	6.2	0.2	△1.0
공 산 품	17.2	16.7	14.6	9.5	△5.4	△5.0	△2.8
전력수도가스	18.5	17.2	12.0	8.1	0.2	△1.4	△1.0
원 재 료	45.9	23.1	16.9	△0.7	△31.2	△10.2	2.6
중 간 재	36.8	27.8	22.2	11.2	△16.2	△11.5	△6.8
최 종 재	15.9	15.0	14.3	12.1	△1.1	△0.8	△0.7
전 체	14.4	13.9	12.0	8.6	△3.5	△3.3	△1.9

자료: 한국은행

품목별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대비)



- 1999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 및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0.7% 상승하였음.
- 집세(△4.6%), 개인서비스(△0.8%) 하락하였으나, 농림수산물(5.7%)과 공업제품(1.2%)가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0.7% 상승함.
-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활물가는 상당폭 상승하였음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가중치가 높은 공업제품의 가격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 반면 체감물가와 밀접한 식품류의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임.

- 9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상승으로 전월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함.
- 전월대비 배(25.2%), 미나리(24.3%), 풋고추(21.9%) 등이 상승하고, 포도(△24.3%), 열무(△19.8%) 등이 하락하였음.
- 전월대비 공업제품의 경우 이동식 전화기(△24.6%) 등은 하락하였으나 원유관련 제품이 상승함. 집세와 개인서비스 요금은 각각 0.2%, 1.3%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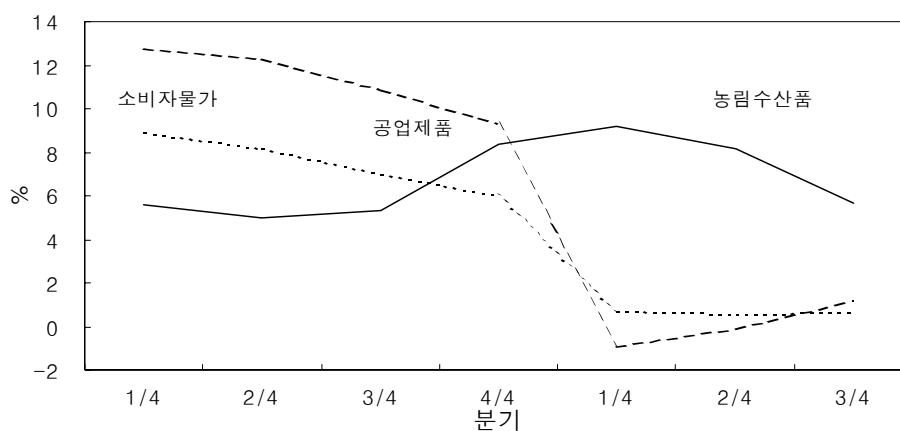
품목별 소비자물가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998				1999		
	1/4	2/4	3/4	4/4	1/4	2/4	3/4
상 품	10.8	10.3	9.3	8.6	1.8	2.2	2.4
농림수산물	5.6	5.0	5.3	8.4	9.2	8.2	5.7
공 업 제 품	12.8	12.3	10.9	9.3	△0.9	△0.1	1.2
서 비 스	7.0	6.0	4.6	3.2	△0.4	△1.2	△1.2
집 세	2.4	1.2	0.0	△1.6	△3.2	△4.4	△4.6
공공서비스	9.8	10.8	9.5	7.9	3.3	1.9	1.1
개인서비스	7.8	5.9	4.3	3.1	△1.2	△1.5	△0.8
전 체	8.9	8.2	7.0	6.0	0.7	0.6	0.7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품목별 소비자물가



- 1999년 3/4분기 수출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1.5% 하락하였으나 2/4분기의 19.3%에 비해 하락폭이 크게 둔화됨.
- 농림수산물과 원자재의 수출물가는 상승하였으나 공산품, 자본재, 소비재의 수출물가가 하락하여 전체적으로는 11.5% 하락함.
- 농림수산품의 전년동기대비 수출물가는 2/4분기 8.8% 하락하였으나 3/4분기에는 4%로 상승함.
- 원자재의 수출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0.3% 상승함으로써 2/4분기 21.2% 하락에서 전환됨.
-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출물가는 하락하였으나 2/4분기에 비해 하락폭이 크게 둔화됨.

품목별 수출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998				1999		
	1/4	2/4	3/4	4/4	1/4	2/4	3/4
농림수산물	42.2	24.1	10.6	0.9	△23.1	△8.8	4.0
공 산 품	66.3	33.7	24.5	5.8	△33.0	△19.5	△11.7
원 자 재	59.4	27.8	18.3	1.7	△34.9	△21.2	10.3
자 본 재	66.3	31.7	21.5	3.1	△35.1	△21.0	△14.6
소 비 재	76.2	43.5	34.6	12.7	△29.2	△16.2	△12.1
전 체	65.9	33.5	24.3	5.7	△32.9	△19.3	△11.5

자료: 한국은행

- 1999년 3/4분기 수입물가(원화기준)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원화의 평가절상으로 전년동기대비 4%로 크게 하락함.
- 농림수산품은 전기대비 2/4분기의 17.6% 하락에서 3/4분기에는 13.8% 하락함.
- 공산품도 전년동기대비 2/4분기의 15.9% 하락에서 3/4분기에는 7.4% 하락함.
- 원자재는 전년동기대비 3.8%, 자본재는 전기대비 4.7% 하락함.

- 소비재도 전년동기대비 4.9% 하락함.

품목별 수입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

	1998				1999		
	1/4	2/4	3/4	4/4	1/4	2/4	3/4
농림수산물	40.8	24.3	20.2	7.2	△24.4	△17.6	△13.8
공산품	58.3	35.4	26.2	10.4	△26.7	△15.9	△7.4
원자재	55.8	32.7	22.7	4.2	△31.6	△16.6	△3.8
자본재	47.5	30.2	26.4	16.0	△14.9	△7.2	△4.7
소비재	39.7	30.5	27.7	15.6	△15.0	△8.9	△4.9
전체	53.7	32.1	23.5	6.7	△28.1	△14.6	△4.0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3. 소비

임금상승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6월 이후 도소매 판매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내수용 소비재 출하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8월의 내수용 내구소비재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85.7% 증가

- 1999년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1/4분기에 이어 전년동기 대비 10.8% 증가함.
- 전년동기대비 2/4분기의 내구재 소비는 1/4분기 39.3%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음. 특히, 8월중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85.7%를 나타냄으로써 증가폭도 점차 커지고 있음. 이는 경기호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하반기에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금융위기 동안 미루어왔던 자동차, 컴퓨터 등 고가 소비재의 구매가 다시 활기를 띄고 있는데 기인함.
 - 품목별로는 전년동월대비 휴대용 전화기(91.5%), 대중소형 승용차(201.8%), 싱크대(261.2%)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비내구재 소비도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0.5%의 증가

율을 보였음. 7월 들어 9.9%로 증가율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8월에는 다시 12.7%로 증가율이 가속되고 있음.

- 품목별로는 화장품(27.1%), 등유(43.7%), 아이스크림(43.8%) 등의 판매가 증가한 반면에 담배, 휘발유, 가공해조류 등은 감소하였음.

소비 동향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1998				1999		
	1/4	2/4	3/4	4/4	1/4	2/4	8월
도소매 판매	△11.2	△16.0	△15.1	△8.3	6.0	10.8	17.7
내수용 소비재출하	△19.1	△25.4	△22.3	△18.4	13.1	17.1	32.7
(내구재)	△25.0	△33.7	△32.8	△21.5	39.3	32.3	85.7
(비내구재)	△16.6	△21.2	△17.2	△16.9	3.2	10.4	12.7

자료: 재정경제부

- 1999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1997년 말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비지출도 증가하고 있음.
- 전년동기대비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0.4% 증가에 그쳐 아직 증가세가 미약한 수준임.
- 소비지출은 1999년 1/4분기에 증가세를 나타낸 이후 2/4분기에도 증가함으로써 IMF 이후 위축되었던 소비가 살아나고 있음.
- 전체적인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4분기의 8.9% 증가에서 2/4분기에는 13.4%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
- 소비지출 비목별로는 모든 비목의 지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교양오락비, 교통비, 외식비 등이 크게 증가함.
- 가구주 특성별로는 모든 계층의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지출 증가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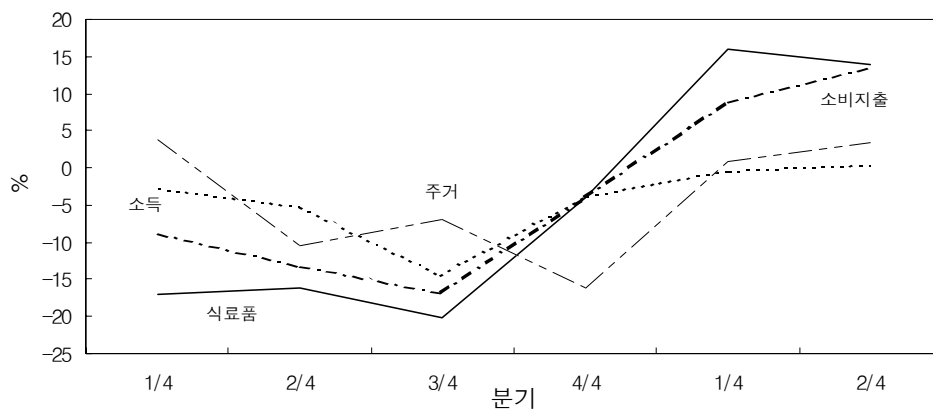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1998				1999	
	1/4	2/4	3/4	4/4	1/4	2/4
소득	△0.6	△4.8	△14.4	△3.8	△0.5	0.4
소비지출	△8.8	△13.2	△16.8	△4.0	8.9	13.4
식료품	△17.0	△16.1	△20.2	△4.0	16.1	14.0
주거	3.9	△10.4	△6.9	△16.2	0.9	3.3

자료: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4. 고용

경기회복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하반기에 들어 실업자수도 상당폭 줄어들 전망

- 1999년 8월 경제활동인구는 전월대비 140천명이 감소한 21,767천명이며,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실업자는 108천명 감소한 1,241천명임.
- 1999년 8월 취업자수는 20,527천명으로 전월대비 31천명이 줄어들었지만

1998년의 19,926천명보다는 601천명이 늘어남.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함.

- 농림어업 취업자는 2,596천명으로 전월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음.
- 1999년 6월부터 8월까지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8월중 경제활동인구는 21,767천명으로 전월보다 140천명 감소하였으며, 경제활동참여율은 60.8%로 전년(60.7%)보다 0.1%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 0.4% 감소함.
 - 8월중 실업률은 전월대비 0.5% 하락한 5.9%임.

고용 활동

단위: 천명, %

	1997	1998	1999			전월대비 증감
			6월	7월	8월	
경제활동인구	21,604	21,390	21,960	21,907	21,767	△140
(경제활동참가율)	(62.2)	(60.7)	(61.4)	(61.2)	(60.8)	(△0.4)
취업자	21,048	19,926	20,604	20,558	20,527	△31
· 농림어업	2,324	2,424	2,643	2,596	2,596	0
· 광공업	4,501	3,904	3,972	3,995	4,028	33
(제조업)	(4,475)	(3,884)	(3,952)	(3,974)	(4,006)	32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4,223	13,598	13,989	13,967	13,902	△65
(건설업)	(2,004)	(1,577)	(1,536)	(1,548)	(1,534)	△14
실업자	556	1,463	1,356	1,349	1,241	△108
실업률(계절조정)	2.6	6.8	6.4	6.4	5.9	△0.5

자료: 재정경제부

IV. 농촌경제 동향

1. 농촌물가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농가구입가격지수도 약간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음

- 1999년 8월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두류, 청과물, 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화훼류는 하락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1.6%, 전월대비 9.6% 상승함.
- 곡물류는 전년동월 대비 4%, 전월대비 1.5% 상승함. 이중에서 두류는 전년동월대비 29.4% 상승하였으며, 서류는 전년동월대비 18.7% 하락하였으나 전월보다는 2.5% 상승함.
- 청과물은 채소류가 전년동월대비 2.9% 하락한 수준이나 전월대비로는 40.8%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전월대비 27.1% 상승한 수준임.
- 축산물의 경우 유란이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가축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44.5%, 전월대비 6.7% 상승한 수준임.
- 기타 농산물의 경우 화훼류가 전월대비 18.9%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큰 변화가 없음.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0.6% 하락한 수준임.

농가판매가격지수의 변화

	가중치	1998. 8	1999.7	1999.8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총 지 수	1000.0	104.9	106.8	117.1	11.6	9.6
곡물·서류	323.3	127.1	130.2	132.2	4.0	1.5
미 곡	288.7	129.7	132.7	134.9	4.0	1.7
맥 류	13.6	105.5	110.8	110.8	5.0	0.0
잡 곡	3.7	110.4	116.4	116.4	5.4	0.0
두 류	7.8	106.2	137.4	137.4	29.4	0.0
서 류	9.5	102.1	81.0	83.0	△18.7	2.5
청 과 물	296.6	114.3	91.9	116.8	2.2	27.1
채 소	165.2	117.2	80.8	113.8	△2.9	40.8
과 실	87.0	107.6	118.2	123.9	15.1	4.8
축 산 물	322.3	73.1	99.0	105.6	44.5	6.7
가 축	294.7	68.6	97.5	104.6	52.5	7.3
유 란	27.6	121.5	115.1	116.8	△3.9	1.5
기 타 농 산 물	57.8	109.6	95.6	98.0	△10.6	2.5
특용작물	48.8	110.3	98.9	99.9	△9.4	1.0
화 훼	6.7	105.4	68.3	81.2	△23.0	18.9
부 산 물	2.3	106.3	106.3	106.3	0.0	0.0

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995=100.0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 1999 8월중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농업용품이 약간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 대비 4.5%, 전월대비 1.9% 상승하여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음.
- 농가구입품목 중에서 가계용품은 식료품가격의 소폭상승에도 불구하고 피복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등의 안정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전월대비 0.8%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용품가격은 종자류, 비료류, 농기구 등은 변화가 없었으나 가축류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7.1%, 전월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임료금은 전년동월대비로는 9.7% 상승하였으나 전월과 비교해서는 변화가 없었음.

농가구입가격지수의 변화

	가중치	1998.8	1999.7	1999.8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총 지 수	1000.0	116.8	119.8	122.1	4.5	1.9
가 계 용 품	524.9	118.4	119.6	120.6	1.9	0.8
식 료 품	97.6	116.8	117.3	121.5	4.0	3.6
피 복 비	39.1	111.2	113.9	114.4	2.9	0.4
주 거 비	48.7	99.0	98.8	98.7	△0.3	△0.1
가 계 광 열	35.6	148.8	153.0	155.2	4.3	1.4
보 건 의 료	69.8	120.4	120.2	120.3	△0.1	0.1
교육교양오락	121.5	121.1	123.6	123.6	2.1	0.0
교 통 통 신	76.5	117.7	117.4	117.4	△0.3	0.0
기 타 잡 비	36.1	115.1	117.1	117.2	1.8	0.1
농 업 용 품	403.7	116.6	120.6	124.9	7.1	3.6
종 자 류	17.4	100.7	100.7	100.7	0.0	0.0
비 료 류	24.3	149.7	149.6	149.6	△0.1	0.0
농 약 류	24.6	146.1	130.3	130.3	△10.8	0.0
농 기 구	83.6	153.3	153.7	153.7	0.3	0.0
영 농 광 열	13.9	146.9	141.2	144.8	△1.4	2.5
가 축 류	129.9	65.6	103.0	116.1	77.0	12.7
사 료 류	77.7	134.7	107.5	107.5	△20.2	0.0
영 농 자 재	32.3	131.1	109.5	109.7	△16.5	0.0
농 촌 임 료 금	71.4	106.7	117.1	117.1	9.7	0.0
농 업 노 임	31.7	108.2	124.7	124.7	15.2	0.0
기 타 임 금	2.8	100.0	100.4	100.4	0.4	0.0
도 정 료	8.2	109.1	110.1	110.1	0.9	0.0
농기계 임차	28.7	104.9	112.3	112.3	7.1	0.0

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995=100.0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2. 농가교역조건

축산물, 채소류 등의 가격상승으로 농가판매가격지수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큰 변동이 없어 8월의 농가교역조건은 크게 개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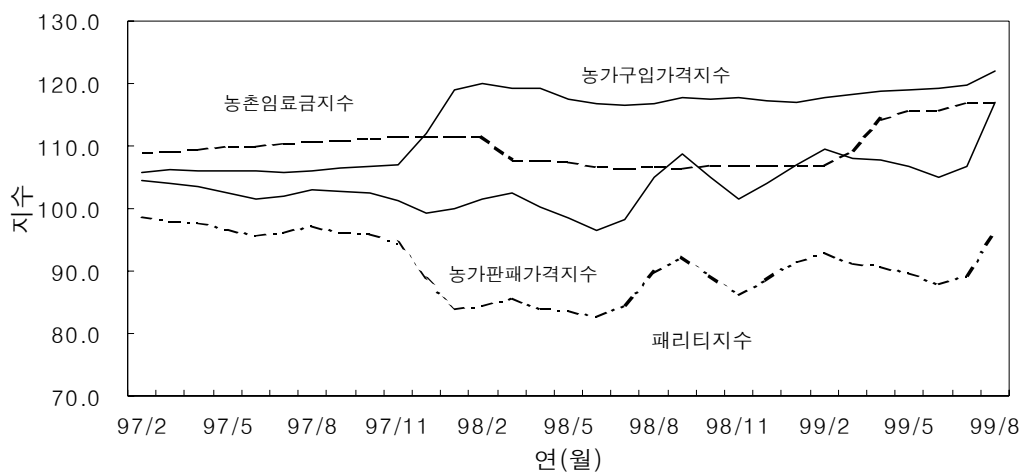
- 1999년 6월 이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어 농가교역조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9년 8월의 패리티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8%, 전월대비 7.6% 상승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어 농가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있음. 8월의 패리티 지수는 95.9 수준임.

농가교역조건 변화

	1998.8	1999.7	1999.8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104.9	106.8	117.1	11.6	9.6
농가구입가격지수(B)	116.8	119.8	122.1	4.5	1.9
패리티지수(A/B*100)	89.8	89.1	95.9	6.8	7.6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산물가지수의 변동추이



3. 농업인력

농림업 취업자수는 경기호전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의 증가로 1999년 6월 이후 점차 감소하고, 귀농가구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음

- 농림업부문의 취업자는 경기호전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의 증가로 1999년 6월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1999년 8월 농림업 취업자수는 2,51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거의 변화가 없음.

농림업 취업자수 동향

단위: 천명

	1997	1998. 8	1999		증감률(%)	
			7월	8월	전년동기비	전월대비
경제활동인구	21,604	21,517	21,907	21,767	1.2	0.6
전산업취업자	21,048	19,943	20,558	20,527	2.9	0.2
농림업취업자	2,215	2,632	2,517	2,516	△4.4	0.0

자료: 통계청

- IMF 관리체제 이후 도시실업 증가로 귀농가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기회 확대로 귀농가구수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여, 1999년 5월 446호에서 8월에는 261호로 줄어듦. 전년동월 대비 29.3%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귀농은 대부분이 젊은 계층 위주이고, 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쌀 농사 등 경종작물을 주로 선택하고 있고, 다음으로 원예, 축산, 과수로 나타남.
 - 귀농가구에게는 1가구당 2,000만원 한도로 영농창업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1999년에 350억원이 할당되어 8월말까지 1,617호에 275억원이 집행 됨.

귀농가구 동향

단위: 호

	1998		1999			증감률(%)	
	년간	1-8월	1-8월	7월	8월	전년동기대비	전월대비
귀농가구수	6,409	4,914	3,475	176	261	△29.3	48.3

자료: 농림부 농촌인력과

4. 농산물 수출입

돈육, 채소류, 화훼 등 신선농림축산물을 중심으로 대일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과자류, 면류 등 가공식품의 대 러시아 수출부진으로 1999년 1~8월 수출총액은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함. 수입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함.

4.1. 수출동향

- 1999년 8월까지의 농림축산물의 수출금액은 전년동기간대비 3.9% 줄어든 9억 8천만 달러, 수출물량으로는 8.7%가 감소됨. 이중 농산물은 금액과 물량이 각각 8.6%, 14.5%가 감소하였으며, 축산물은 각각 10.5%, 1.3% 증가하였음.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톤, 백만불

구 분	1998	1998. 1~8월		1999. 1~8월		증감율 (%)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수산물	3,047.1	1,424.7	1,909.1	1,228.7	1,939.1	△13.8	1.6
농림축산물	1,682.9	1,000.3	1,020.4	913.7	980.2	△8.7	△3.9
농축산물	1,390.9	826.2	890.1	723.2	857.2	△12.5	△3.7
- 농산물	1,005.6	721.4	662.1	617.0	605.2	△14.5	△8.6
- 축산물	385.3	104.8	228.0	106.2	252.0	1.3	10.5
임 산 물	292.0	174.1	130.3	190.5	123.0	9.4	△5.6
수 산 물	1,364.1	424.4	888.7	315.0	958.9	△25.8	7.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1999년 8월까지 돼지고기 총수출액은 209백만달러로서 전년동기대비 180백만달러보다 15.6% 증가하였고, 물량으로는 9% 증가한 64.5천톤을 수출하였음. 국별로 보면 주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여 13.9% 늘어난 203.9백만달러, 대만으로의 수출도 급격히 늘어난 1.6백만달러임.
- 채소류중 고추는 136.7% 증가한 10.2백만달러, 딸기는 98.3% 증가한 7.5백만달러, 토마토는 80.8% 증가한 6.3백만달러를 수출함.
- 김치의 수출액은 80.9% 늘어난 46.4백만달러, 수출량은 60.4% 증가한 15.1천톤임. 이 중에서 최대수입국인 일본의 김치 수요확대와 한국산 김치의 꾸준한 소비 증가로 일본에 대한 수출은 82.4% 증가한 45.2백만달러임. 미국으로의 수출은 42.9% 증가한 40만달러 수준임.
- 화훼류 중 백합은 전년동기대비 39.4% 감소한 1.6백만달러, 난초는 681.8% 증가한 1백만달러, 장미는 121.6% 증가한 3.9백만달러를 수출함.
- 인삼류의 수출금액은 19.7% 증가한 47.6백만달러이며, 수출물량은 23.4% 감소한 1,300톤임. 이중 홍삼은 수출단가의 상승으로 물량이 47.4%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53.8% 늘어난 24.1백만달러를 기록함. 백삼제품은 20.2% 감소한 4.9백만달러이며, 백삼정은 12.2% 감소한 7백만달러임. 홍삼수출은 5월부터 대만, 홍콩, 일본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홍삼정은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 과실류는 주요 수출시장인 동남아 및 러시아의 경기침체 등으로 과실류 수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수출금액이 36.9% 감소한 13.6백만달러임.
- 가공식품(자당, 라면, 과자류 등) 중 라면은 23.9% 감소한 52.5백만달러, 비스킷은 32% 증가한 14.2백만달러, 자당은 37.9% 감소한 46.3백만달러임.

4.2 수입동향

- 소득 및 소비성향의 상승으로 육류, 열대과일 등 대부분의 농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음. 8월까지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수입물량이 19.8% 증가하고 수입금액은 11.7% 늘어난 47억 7,530만달러임.
- 곡물류는 전년동기 대비 수입물량은 늘어났으나 수입금액은 14% 감소한 1,015.1백만달러를 수입함
 - 옥수수 수입량은 국제가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했으나 수입액은 14.2% 감소한 572백만달러임.
 - 대두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하였으나 수입금액은 원화강세의 영향으로 27% 감소한 178백만달러를 기록함.
- 축산물의 수입금액은 762백만달러로 78.2% 증가하였으며, 물량은 120% 늘어난 416천톤임.
 - 쇠고기: 120천톤, 290백만달러, 돼지고기: 89천톤, 153백만달러
- 과실류의 수입금액은 203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7.9% 증가하였고, 물량은 240톤으로 49.3%가 증가함.
 - 포도: 16.3천톤, 28.4백만불
 - 바나나: 115.8천톤, 53.7백만달러
 - 파인애플: 21.2천톤, 13.8백만달러
 - 오렌지: 45.6천톤, 59.6백만달러

농림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톤, 백만불

구 분	1998	1998. 1~8월		1999. 1~8월		증감율 (%)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수산물	7,021.2	17,133.5	4,603.5	20,766.6	5,511.2	21.2	19.7
농림축산물	6,438.7	16,941.0	4,275.9	20,288.6	4,775.3	19.8	11.7
농축산물	5,423.5	13,837.6	3,644.4	14,839.4	3,813.0	7.2	4.6
- 농산물	4,696.6	13,648.6	3,216.7	14,423.7	3,051.0	5.7	△5.2
- 축산물	726.9	189.0	427.7	415.7	762.0	120.0	78.2
임 산 물	1,015.2	3,103.5	631.5	5,449.2	962.2	75.6	52.4
수 산 물	582.5	192.5	327.6	477.9	735.9	148.3	124.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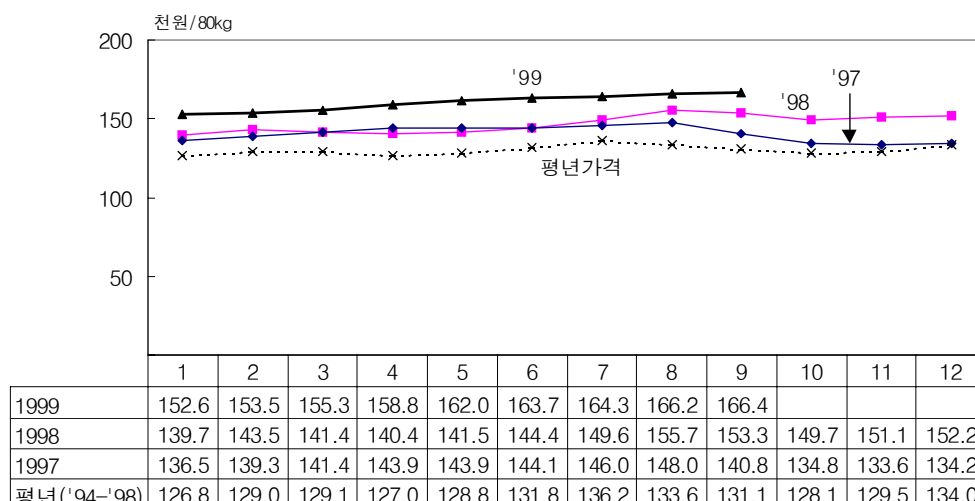
Ⅵ.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쌀

- 1999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8년의 99.2kg보다 1.4% 줄어든 97.8kg으로 전망됨.
- 7월 현재 1인 1일당 쌀 소비량은 258.5g으로, 작년 동기보다 2.5% 감소
- 1999 양곡년도의 쌀 총소비량은 511만톤(식용 458, 가공용 17, 기타 36)으로 추정되며, 총공급량은 이월량 81만톤, 생산량 510만톤, MMA 수입량 19만톤 등 총 610만톤임. 양곡년도말 재고량은 98만톤(소비량의 19%)으로서 적정 재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작년 수확기 이후 쌀 가격은 약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3/4분기의 쌀 도매가격은 80kg당 16만 5,600원(호남미, 상품 기준)으로 작년 3/4분기보다 8.3% 높은 수준임.

쌀 도매가격 동향 (호남미,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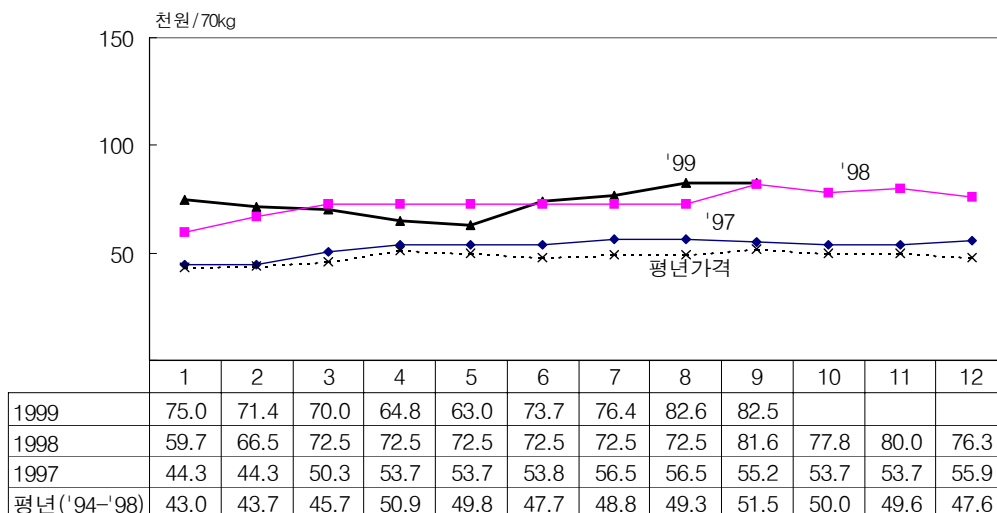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보 리

- 1999년 1인당 연간 보리 소비량은 1998년 수준과 비슷한 1.5kg으로 전망 됨.
 - 1999년 7월 가구에서 소비한 1인 1일당 보리 소비량은 4.0g으로 작년 동기의 4.8g과 비교하여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함.
- 금년산 보리 생산량은 23만 5천톤으로 이는 작년 생산량보다 27.3% 증가한 것이며, 이중에서 쌀보리·겉보리는 58.8%이고 맥주보리는 41.2%를 점하고 있음. 금년 1~8월의 보리 수입량은 11만 7천톤으로 작년 동기 수입실적 9만 1천톤의 약 1.3배임.
- 작년 9월 이후 하락추세에 있던 보리 가격은 6월에 상품성 높은 햇보리가 출하되면서 상승하기 시작하여 9월 현재 보리 도매가격은 70kg당 8만 2,500원(쌀보리, 상품 기준)으로 상승하였음. 작년 3/4분기보다 6.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보리 도매가격 동향 (쌀보리,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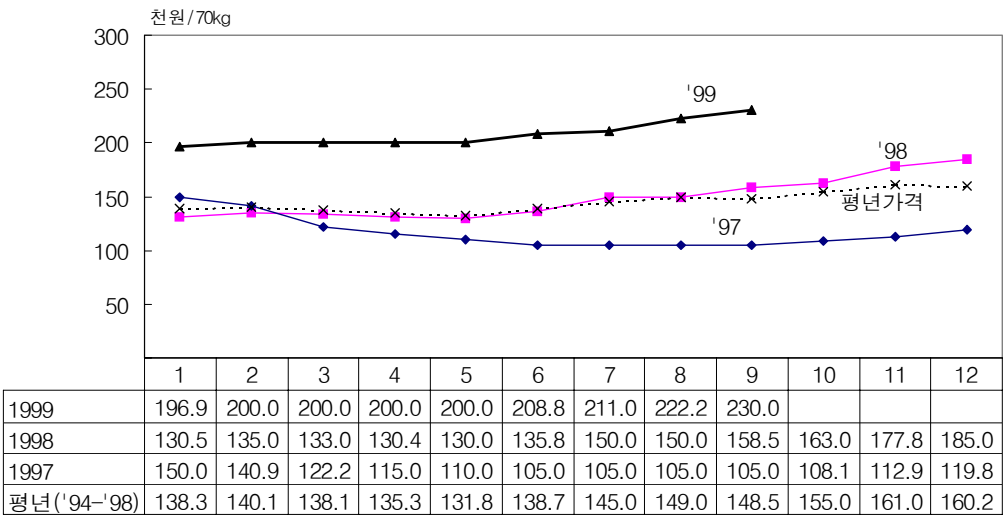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대 두

- 1999년 1인당 연간 대두 소비량은 1998년 9.4kg 수준보다 약간 증가한 9.5 kg으로 전망됨. 대두 소비량의 약 76%를 점하는 착유용 대두 수요는 작 년 경기침체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금년 2/4분기에는 1997년 수준으로 회복됨.
- 1999년 7월 가구에서 소비한 1인 1일당 대두 소비량은 잠정 집계 결과 10g임.
- 작년 대두 생산량은 14만톤으로 1997년보다 10% 감소하였으며, 수요 감 소로 인하여 금년 1~8월의 수입량도 79만 3천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7% 감소함.
- 작년 7월부터 상승하던 대두 도매가격은 9월 현재 작년 9월 15만 8,500원 보다 45% 상승한 70kg당 23만원(상품 기준)임. 3/4분기 도매가격은 22만 1천원으로 작년 3/4분기보다 44.6% 높고, 금년 2/4분기보다 8.9% 높은 수 준임.

콩 도매가격 동향 (국산 백태,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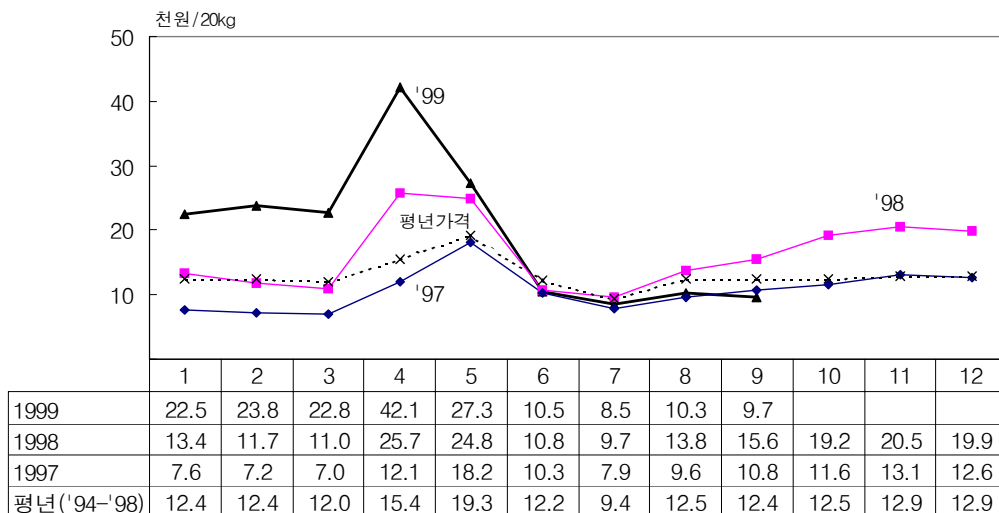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감 자

- 작년 감자 생산량은 1997년보다 재배면적이 9% 줄어든데다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은 1997년보다 12% 감소한 56만톤(생서 중량 기준)임.
- 금년 1~8월의 수입량은 3만 8,837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66% 증가함.
- 작년 생산감소로 도매가격이 작년 8월부터 상승하여 시작하여 4월에는 20kg당 4만 2,100원(슈퍼리어, 상품 기준)까지 폭등함. 금년산 봄감자의 출하가 늘어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어 9월 감자 도매가격은 20kg당 9,700원으로 평년가격 수준 이하가 됨.

감자 도매가격 동향 (슈퍼리어,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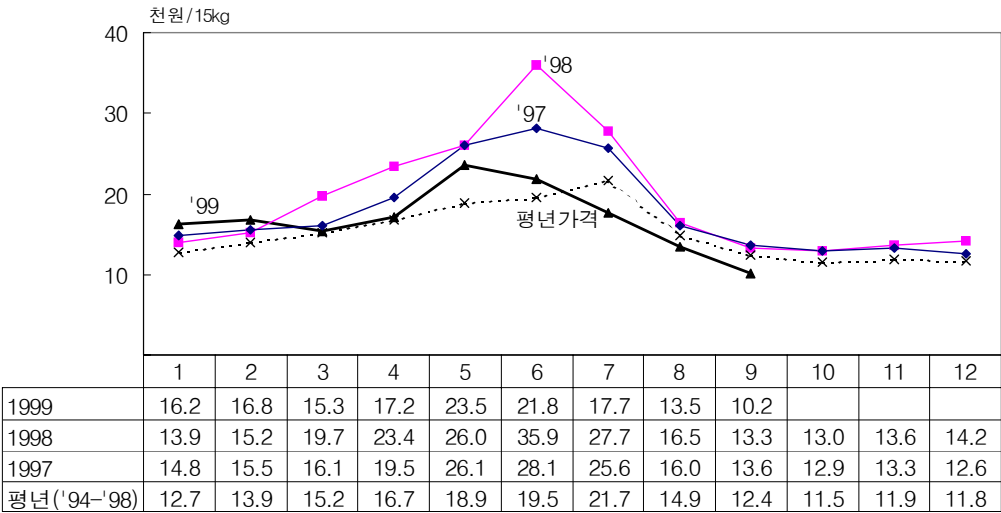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고구마

- 작년 고구마 생산량은 33만 9천톤(생서 중량 기준)으로 작황이 나빴던 1997년보다 16% 증가함. 이에 따라 작년 8월부터 금년 1/4분기까지 가격은 안정됨.
- 3/4분기의 고구마 도매가격은 15kg당 1만 3,800원으로 평년가격보다 15% 낮은 수준임. 9월 가격은 1만 200원으로 하락세에 있음.

고구마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료곡물

- 1997년 IMF의 영향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던 사료용 곡물 수입이 금년에는 증가함. 금년 1~8월의 사료용 옥수수과 밀 수입량은 812만 7천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4.9% 증가함.
- 경기침체와 사료 곡물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하여 국제 곡물가격은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음. 사료용 옥수수의 1~8월 수입가격은 111달러, 사료용 밀의 경우는 작년보다 37달러 낮은 109달러임.

사료용 곡물 수입 실적

단 위			1995	1996	1997	1998	1998.1~8	1999.1~8
옥수수	수입량	천톤	7921	5,476	6,516	5,336	4,665	5,146
	단가	US\$/톤	140	179	148	125	143	111
	수입액	백만US\$	1,104	980	964	667	667	515
밀	수입량	천톤	131	905	1,096	2,347	3,081	909
	단가	US\$/톤	137	198	141	115	150	94
	수입액	백만US\$	18	179	154	270	463	85
계	수입량	천톤	8,052	6,381	7,612	7,683	7,746	3,326
	단가	US\$/톤	139	182	147	122	146	106
	수입액	백만US\$	1,122	1,159	1,118	938	1,130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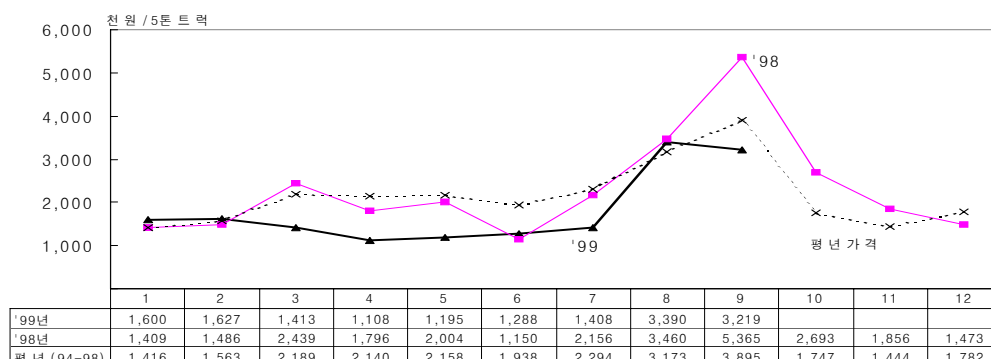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 채소류

배 추

- 7월은 배추 출하량이 증가하고 휴가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줄어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8월은 7월보다 도매시장 반입량이 준데다 상품성 하락으로 폐기물량이 많아 가격은 상승하였음. 9월은 출하량이 많고 작황이 좋아 9월 중순까지 가격이 하락하였음.
- 배추의 3/4분기 도매가격은 5톤 트럭당 267만원(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는 2.2배 높은 수준이나, 평년 3/4분기보다는 27% 낮은 수준임.
- 금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정도 줄어든 1만 4,377ha 수준이 될 것으로 조사됨. 시기별로 보면 10월수확예정면적은 작년수확예정면적보다 12% 늘어난 반면, 12월 수확예정면적은 작년보다 22% 적은 것으로 나타나 조기출하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월동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재배면적보다 7% 정도 적을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보면 해남군에서는 감소하고 진도군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농업관측센터 9월 17일 조사치).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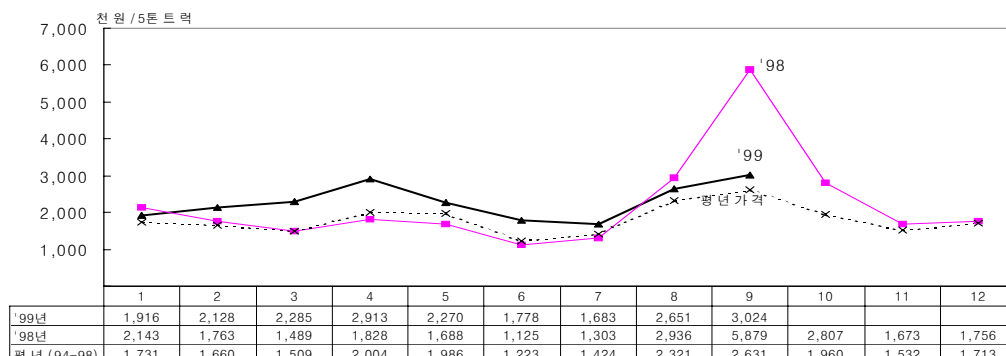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무

- 7월 중 도매가격은 평년에 비해 17%높고, 작년에 비해 28%높은 수준이었음. 8월 하순 이후 도매시장 반입량은 크게 늘어났으나 가격은 5톤 트럭당 250~350만원(상품 기준)에서 등락을 반복해 왔음. 9월 상품 도매가격은 8월보다 14% 높은 5톤 트럭당 302만원이었고, 이는 평년 9월보다 15% 높고, 게릴라성 호우로 가격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작년 9월보다는 48% 낮은 수준임.
- 무의 3/4분기 도매가격은 5톤 트럭당 246만원(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 6% 높은 수준이고, 평년 3/4분기보다도 15% 높은 수준임.
- 금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5% 정도 줄어든 1만 4,415ha 수준이 될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 보면 호남지역에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시기별로 보면 10월 수확예정면적은 작년 수확예정면적보다 2% 많고, 11월과 12월은 각각 8%와 6%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가을무 생육상황은 9월에 비가 많이 내렸으나 평년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표본농가 조사결과 생육상황은 ‘아주 좋은’ 13%, ‘좋은 편임’ 25%, ‘평년 수준’ 28%, ‘나쁜 편임’ 29%, ‘아주 나쁨’ 5%로 나타남.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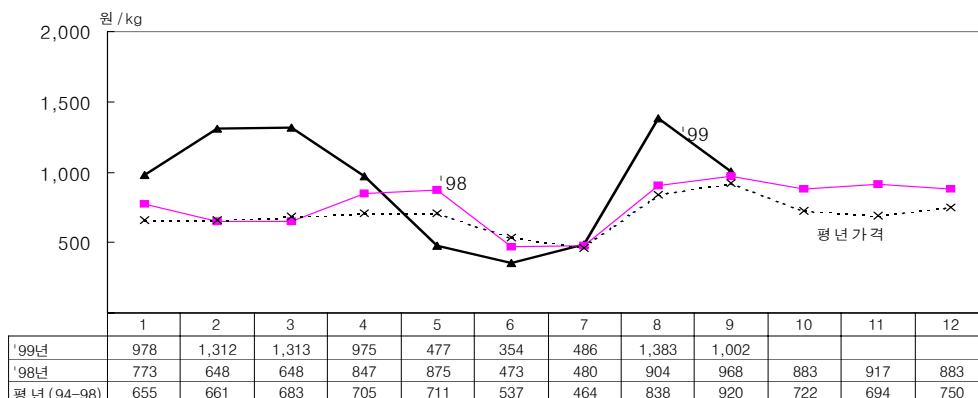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대 파

- 8월에 태풍의 영향으로 출하물량이 달려 가격은 강세를 보였으나, 8월 하순 이후 가격은 계속 하락하였고 추석 전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kg당 1,730원(상품)까지 상승하였으나 9월말에는 925원까지 다시 하락세를 보였음.
- 대파의 3/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960원(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는 59% 높은 수준이고, 평년 3/4분기보다도 30% 높은 수준임.
- 금년 대파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0% 정도 증가한 1만 4,099ha 수준이 될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 보면 호남지역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충남과 영남지역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9월 이전에 수확된 대파의 10a당 단수는 작년에 비해 11% 감소한 2,350kg, 10월 이후 수확예정인 대파의 단수는 작년에 비해 7% 감소한 2,456kg이 될 것으로 추정됨. 지역별로 보면 12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출하될 전남지역의 대파 작황은 좋은 반면, 경남지역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농업관측센터 9월 17일 조사치).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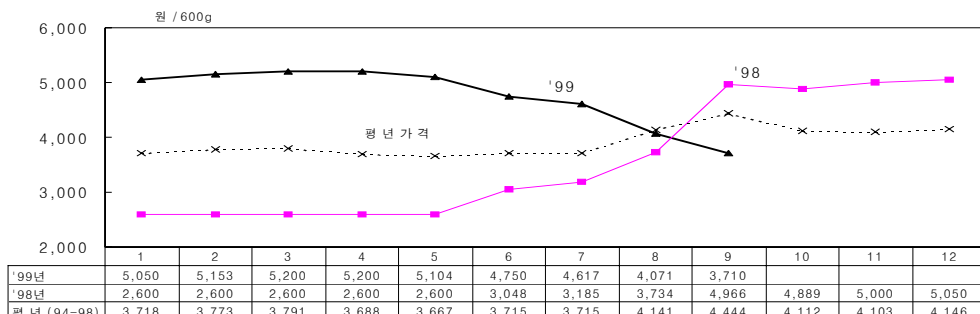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고 추

- 고추의 3/4분기 도매가격은 600g당 4,130원(화건 상품 기준)으로 2/4분기 보다는 18% 낮은 수준이나, 평년 3/4분기보다는 1% 높은 수준임.
- 고추재배면적은 75,574ha로 작년보다 16% 많으나, 평년보다는 11% 적은 수준임. 금년은 터널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대과종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단수는 작년보다 25~30% 늘어나 280~290kg으로 전망.
- 금년산 생산량은 21만 1,600~21만 9,200톤으로 작년 생산량보다 44~50% 많고, 평년 생산량보다 11~14% 많은 수준임. 2000년 의무수입량 5,908톤을 더하면 총공급량은 21만 7,500~22만 5,100톤이 될 것으로 추정됨.
- 금년산 고추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단수가 280kg일 경우 근당 3,500~3,600원, 단수가 290kg까지 올라갈 경우는 근당 3,300~3,400원으로 작년산 연평균가격 4,890원보다 26~33% 낮을 것으로 추정됨.
- 고추장의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가 금년말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고추장이 8% 저율관세로 수입될 수 있게 됨. 고추장 원료로 쓰이는 고추가 1만 5천~2만톤 정도이므로 수입제한이 풀리면 고추 가격은 3~5%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고추 도매가격 동향 (화건,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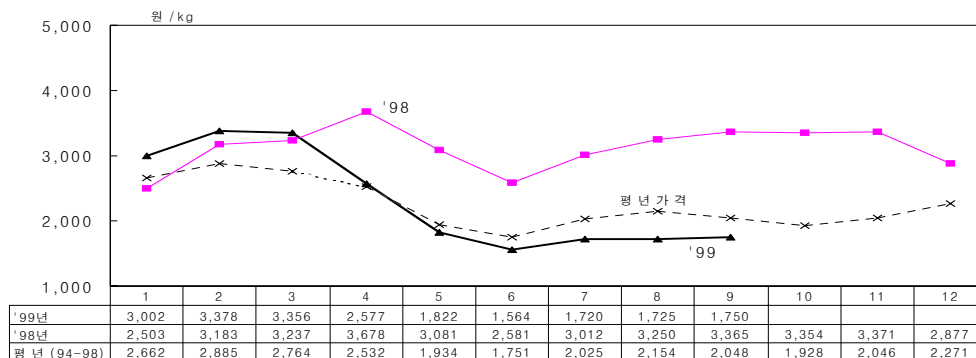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마늘

- 마늘 3/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1,732원(난지형 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는 13% 낮은 수준이고, 평년 3/4분기보다는 17% 낮은 수준임.
- 냉동마늘은 30%의 저율 관세가 부과되므로 중국산 냉동마늘의 수입원가는 kg당 670원으로 추정되나 1999년산 냉동마늘 수입량은 1만~1만 5천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금년산 마늘 생산량은 작년보다 23% 증가한 48만 4천톤임. 여기에 의무수입량 9천톤, 이월량 2천톤, 민간수입 예상량 2만톤을 더한 공급량은 작년보다 15% 많은 51만 5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총공급량 중에서 종자용 약 8만톤을 제외하고 10월 이후에 출하될 물량은 작년 동기보다 11%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10월 이후에는 가격이 점차 상승하여 2,300원/kg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품종별로 보면 한지형은 작년보다 6% 감소하고, 난지형은 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농업관측센터 9월 17일 조사치).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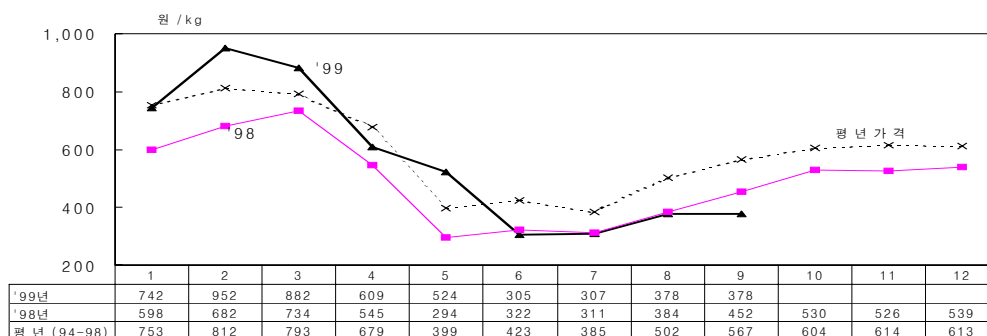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양 파

- 양파 3/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354원(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는 26% 낮은 수준이고, 평년 3/4분기보다는 27% 낮은 수준임.
- 금년산 양파 총공급량은 작년보다 6퍼센트 늘어난 94만 4천톤임. 이중 저장량은 작년보다 14퍼센트 증가한 41만 2천톤으로 조사됨(한국농산물냉장협회).
- 10월 이후에 출하될 저장물량은 작년보다 20%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10월 이후의 가격은 작년 동기 가격 500~950원/kg(상품 기준)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5%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9월에 비가 많이 내려 묘의 생육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 재배면적은 재배의향면적 증가율 조사치 15%보다 낮은 10% 정도 증가한 1만 7,700ha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품종별로 보면 중만생종의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6% 증가하고 조생종은 1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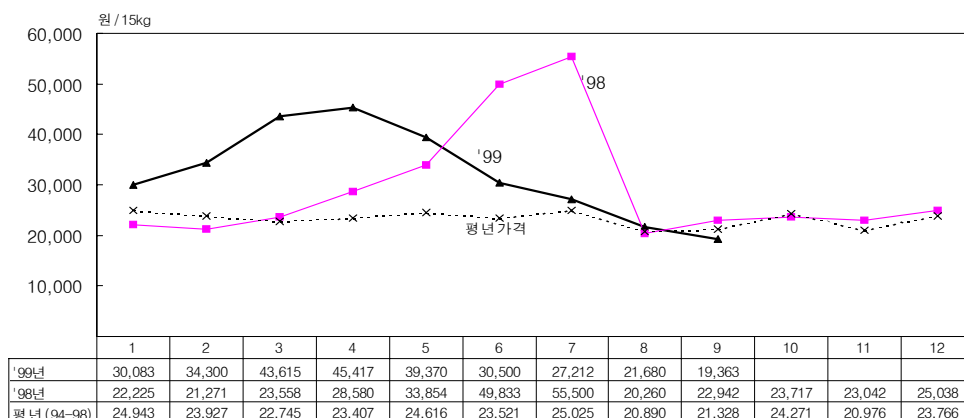
(김연중 작성)

3. 과일류

사과

- 7월은 수박, 포도 등 다른 과일의 출하가 늘면서 수요가 감소하여 하락하였으며, 8월은 조생종인 쓰가루의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출하량이 작년보다 25% 정도 줄어들어 가격은 작년 8월보다 15% 높았음.
- 9월에는 조생종인 쓰가루와 중생종인 홍로, 홍월이 추석전에 집중 출하되어 9월 중순 출하량은 상순보다 47% 증가하였으나 추석 수요가 크게 늘어나 도매가격은 상순보다 17% 상승하였음. 그러나 추석 이후 출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수요도 줄어들어 가격은 약보합세였음. 사과의 3/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15kg당 2만 3천원이었음.
- 금년 사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0% 줄어든 3만 1,151ha로 조사되었음. 성목면적은 작년보다 8% 감소한 2만 3,218ha이며, 유목면적은 16% 감소한 7,933ha로 나타나 신규조성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농림부 7월 20일 조사치).

사과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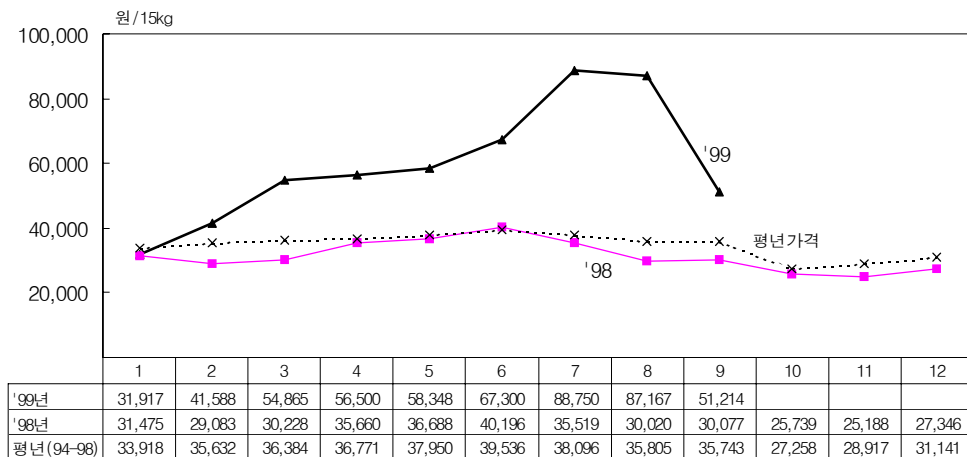


주: 10월~익년 7월은 후지, 8~9월은 쓰가루 기준임. 1999년 9월 가격은 9월 1~28일의 평균임. 평년가격은 1994~98년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배

- 7월중 평균 도매가격은 15kg당 8만 8,696원(신고, 상품)으로 평년 7월보다는 133%, 작년 7월보다는 150% 높은 수준이었으며, 8월은 9만 200원(신고, 상품)으로 작년 8월보다 3배 높은 수준이었음. 9월에는 금년산 배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출하량이 크게 늘어나고, 추석수요도 크게 늘어나 도매가격은 9% 하락한 4만 9,100원이었음.
-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증가한 2만 5,677ha로 조사되었음. 성목면적은 작년보다 14% 증가한 반면 유목면적은 작년보다 3% 감소하여 신규조성 면적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됨(농림부 7월 20일 조사치).
- 특히, 8월초의 풍수해로 전체적으로 평년대비 19% 정도의 단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의 낙과피해가 커서 9월 출하량은 작년 9월보다 41% 정도 감소하였으나 10월 이후 출하량은 작년보다 약간 증가할 전망이다. 금년산 배의 총생산량은 작년보다 9% 감소한 23만 5천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배 도매가격 동향 (신고,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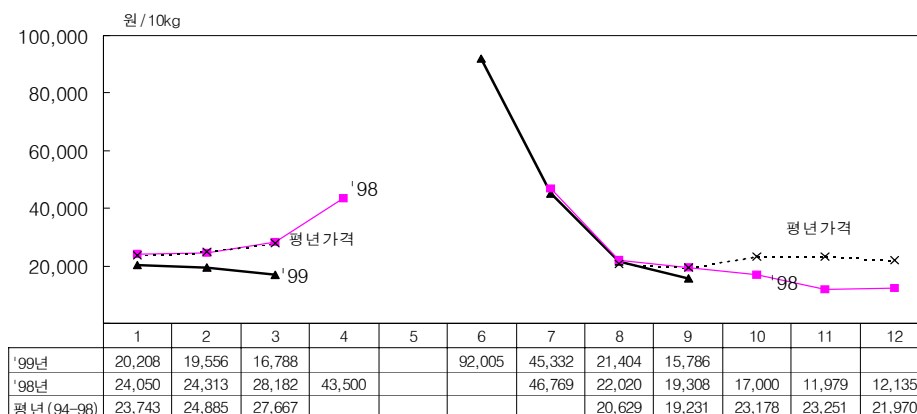


주: 1999년 9월 가격은 9월 1~28일의 평균임. 평년가격은 1994~98년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포도

- 7월에는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캠벨얼리는 6월보다 49% 하락하고, 텔라웨어는 6월보다 42% 하락하여 하락세를 보임. 8월에는 캠벨얼리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도매가격은 7월보다 52% 하락하였으나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음. 9월에는 출하량 증가로 캠벨얼리 가격이 8월보다 26% 하락하였으나 주 출하시기가 끝남에 따라 출하량은 감소하였음.
- 신선포도 수입은 칠레산 생산이 끝나고, 국내산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3/4분기에는 7월에 미국산 8톤이 수입되는데 그침.
-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증가한 3만 529ha로 나타남. 성목면적은 작년보다 5% 증가한 2만 3,878ha이고, 유목면적은 6% 감소한 6,651ha임.
- 금년산 포도는 성목면적이 5% 증가하고, 성목단수가 14% 증가하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18% 증가한 47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수요 증가폭이 커서 10월 가격도 작년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거봉은 상품성 저하로 가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포도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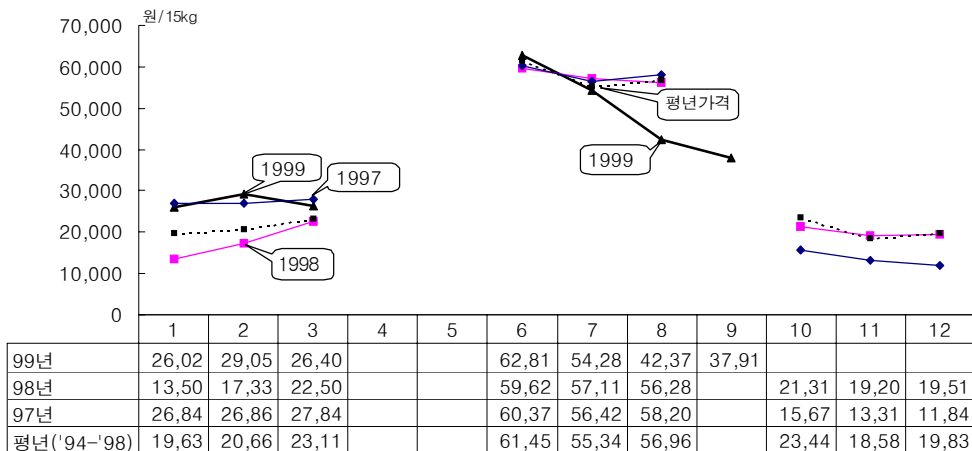


주: 1~4월 가격은 세레단, 6~12월 가격은 캠벨얼리 기준임. 1999년 9월 가격은 1~28일의 평균임. 평년가격은 1994~98년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감 굴

- 6월부터 출하된 하우스감굴 가격은 하락세임. 7월에는 상품 15kg당 5만 4,300원으로 작년보다는 5% 낮고, 평년 7월보다는 2% 낮은 수준이었으며, 8월에는 4만 2,400원으로 작년보다는 25% 낮고, 평년 8월보다는 26% 낮은 수준임. 9월 가격은 3만 7,900원으로 8월보다 10% 낮은 수준임.
-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4% 증가한 2만 5,008ha로 나타났음. 성목면적은 2.4% 증가하였으며, 유목면적은 1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농림부 7월 20일 조사치).
- 금년산 감굴의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단수의 증가로 70만톤으로 추정 됨(농림부).

감 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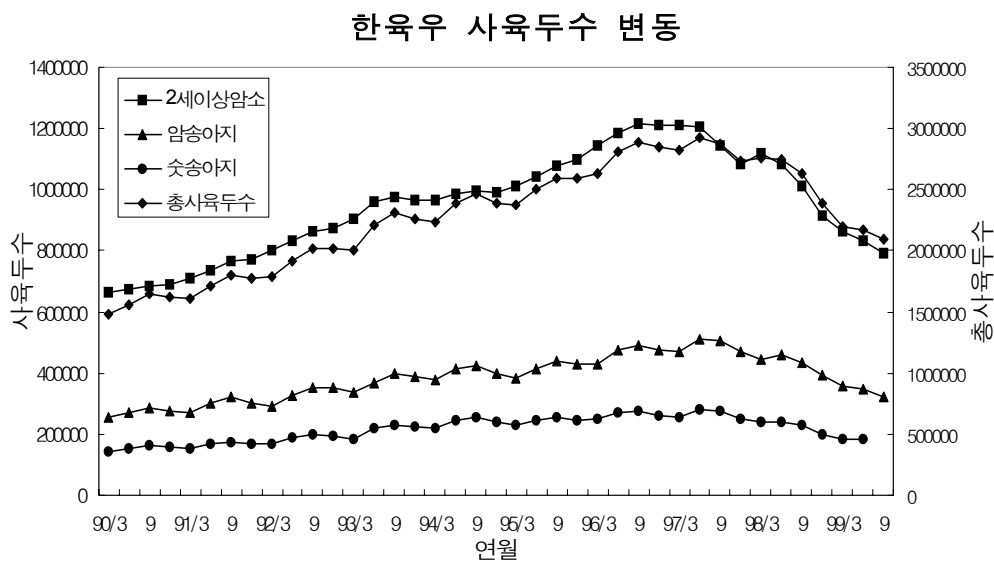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박준기 작성)

4. 축산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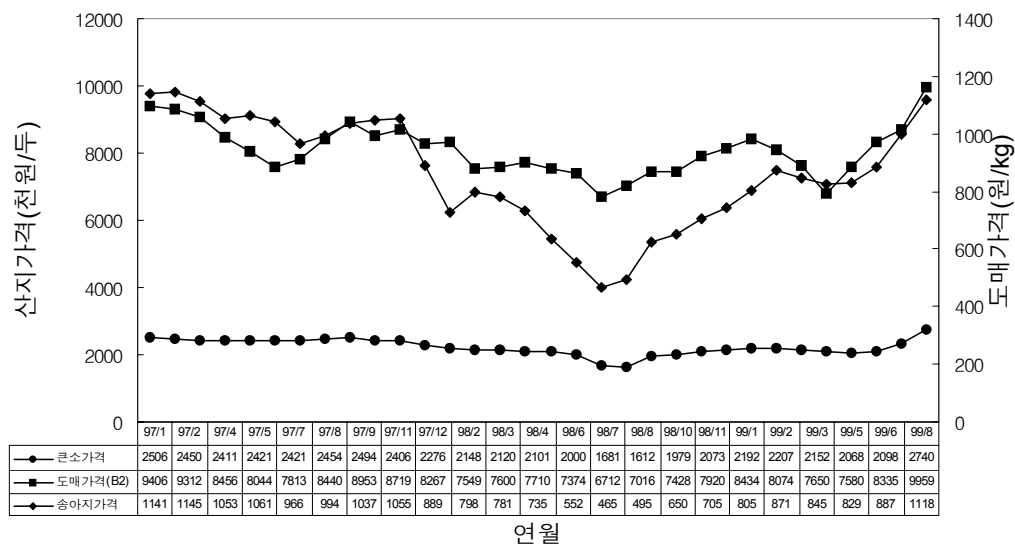
- 한육우 총사육두수는 1998년 12월 2,383천두에서 1999년 3월 2,198천두, 6월 2,167천두, 9월 2,094천두로, 3개월전 보다 73천두($\Delta 2.7\%$), 전년동기 보다 556천두($\Delta 17.5\%$) 감소됨.



- 한육우 사육두수가 감소한 요인은 첫째로 쇠고기 시장개방이 임박하여 도축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암소가 크게 감소하여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가임암소두수는 1998년 3월 1,268천두, 12월 1,061천두, 1999년 3월 1,000천두, 6월 975천두, 9월 925천두로, 3개월전 보다 46천두($\Delta 4.7\%$), 전년동기 보다 237천두($\Delta 20.3\%$) 감소됨.
 - 암소도축의 증가로 가임암소 부족현상이 발생
 - 1세미만 송아지두수: (1998.9) 1,015천두 → (1999.6) 806천두 → (1999.9) 758천두 (전분기 대비 5.4% 감소)
 - 암소도축두수: (1998.1-6) 233.5천두 → (1999.1-6) 265.1천두 (13.5% 증가)

- 둘째,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도축두수가 증가하여 사육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도축두수: (1999 1/4) 286천두 → (2/4) 233천두 → (3/4) 249천두
(전분기 대비 6.9% 증가)
- 셋째, 쇠고기 소비 부진이 지속되기 때문임.
- 국내산 쇠고기 소비: (1998. 1-6) 120.7천톤 → (1999. 1-6) 119.6천톤
(전년동기대비 0.9% 감소)
-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
- 큰수소값(천원/500kg): (1997.12) 2,276천원 → (1998.9) 1,955 → (12) 2,129 → (1999.2) 2,207 → (3) 2,152 → (4) 2,079 → (5) 2,068 → (6) 2,098 → (7) 2,347 → (8) 2,740 → (1999.10.4) 2,93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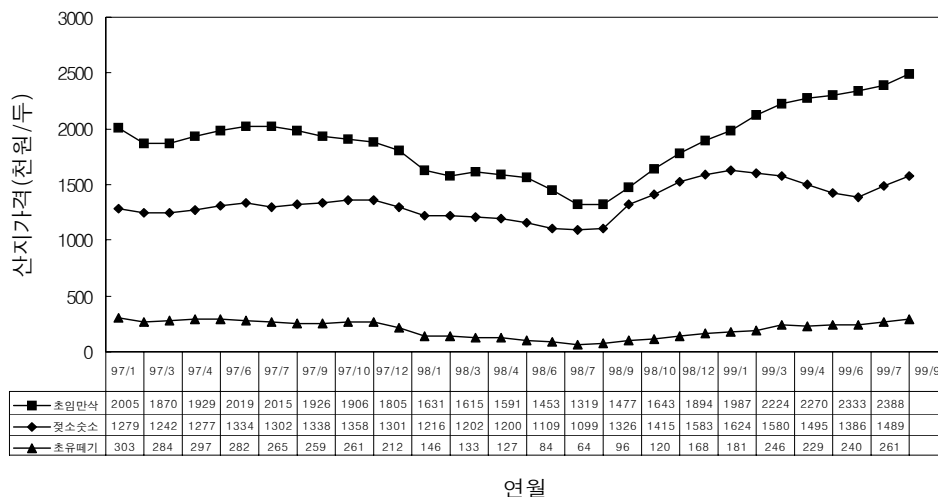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젓 소

- 젓소 총사육두수는 1998년 3월 568천두, 12월 539천두에서 1999년 3월 533천두, 6월 535천두, 9월 535천두로, 3개월전과 같은 수준이나, 전년동기 보다는 17천두($\Delta 3.1\%$) 감소됨.
- 사육두수가 유지된 요인은 지난해 저능력우 도태 등으로 2세 이상 마리수가 감소되었지만, 울들어 분유재고 축소, 원유가격, 젓소가격, 사료가격 등의 안정 경향에 따라 경영여건이 호전되었기 때문임.
 - 가임암소두수는 1998년 3월 383천두, 12월 366천두, 1999년 3월 366천두, 6월 369천두, 9월 367천두로, 3개월전보다 2천두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에 비해 9천두($\Delta 2.4\%$) 감소함.
- 젓소 산지가격변동
 - 암송아지값(초유떼기): (97.12) 212천원 $\rightarrow$ (1998.3) 133 $\rightarrow$ (12) 168 $\rightarrow$ (1999.3) 217 $\rightarrow$ (6) 239 $\rightarrow$ (7) 261 $\rightarrow$ (8) 291 $\rightarrow$ (1999.9.30) 326천원
 - 초임만삭: (1997.12) 1,805천원 $\rightarrow$ (1998.3) 1,615 $\rightarrow$ (12) 1,894 $\rightarrow$ (1999.3) 2,234 $\rightarrow$ (6) 2,333 $\rightarrow$ (7) 2,388 $\rightarrow$ (8) 2,491 $\rightarrow$ (1999.9.30) 2,49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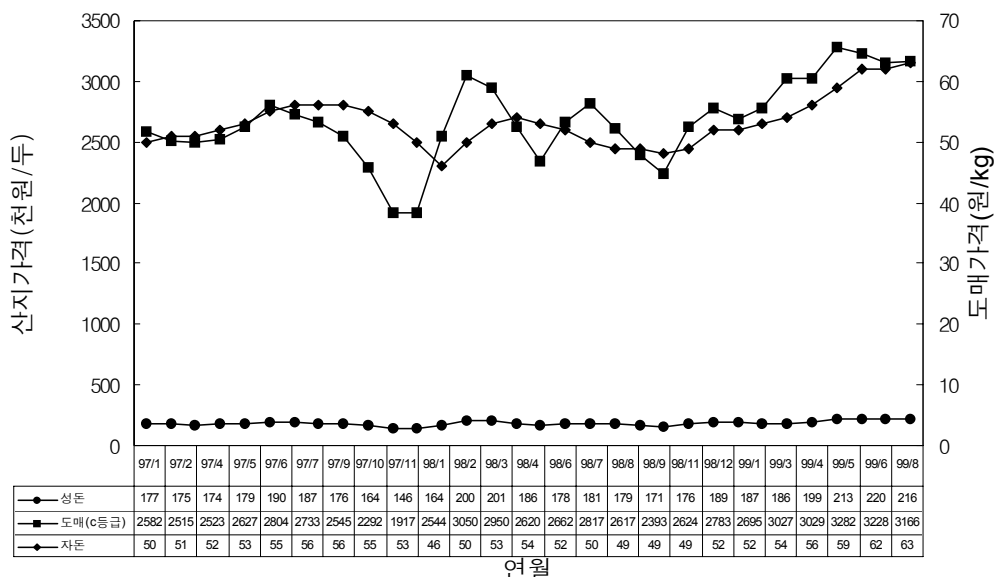
젓소 산지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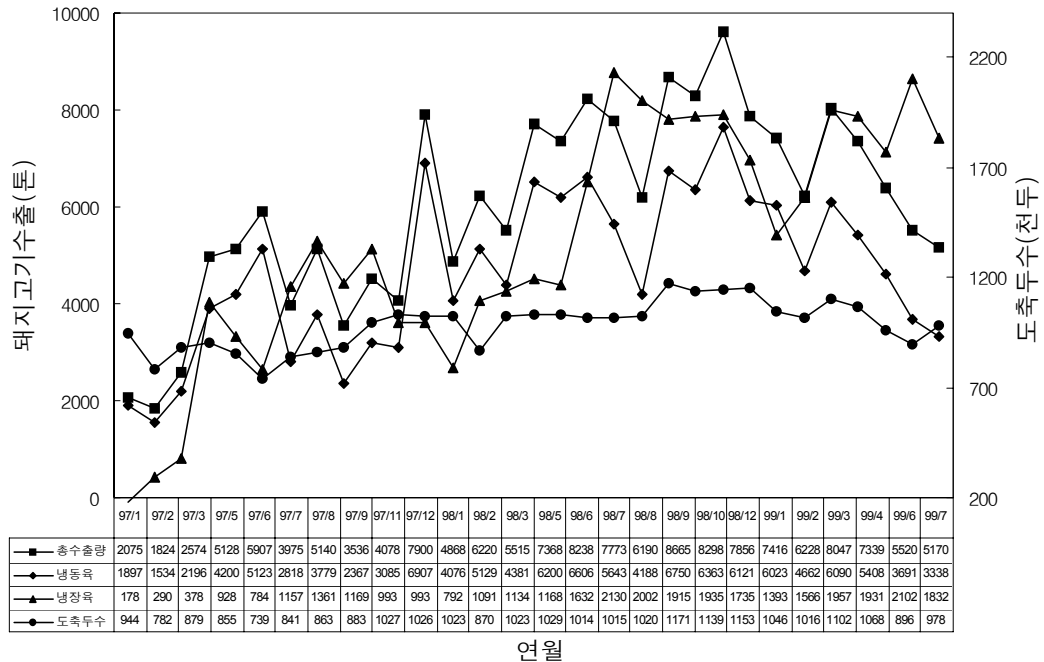
돼 지

- 돼지 총사육두수는 1998년 3월 7,441천두, 12월 7,544천두에서 1999년 3월 7,376천두, 6월 7,344천두, 9월 7,813천두로, 3개월전 보다 469천두 (6.4%), 전년동기 보다 25천두(0.3%) 증가됨.
-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한 요인은
 - 돼지값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 6월 이후 20만원을 넘어서, 농가 사육 심리 고조
 - 산지가격: (1998.3/4) 179천원/100kg → (4/4) 168 → (1999 2/4) 199 → (3/4) 218 (전분기대비 9.5%, 전년동기대비 21.8% 상승)
 - 돼지고기값의 꾸준한 강세에 따라 도축 지연으로 사육마리수의 증가
 - 돼지고기 도매가격(축공 C등급): (1998 3/4) 2,699원/kg → (1999 2/4) 3,048 → (3/4) 3,325 (전분기대비 9.1%, 전년대비 23.2% 상승)
 - 도축두수: (1998 3/4) 3,049천두 → (1999 2/4) 3,039 → (3/4) 2,870 (전분기대비 △5.6%, 전년대비 △5.9% 감소)
 - 대일수출량:(1998.1~6) 39.9천톤→(1999.1~6) 40.8 (2.0% 증가)

돼지 산지 및 도매가격 변동



돼지 도축두수 및 수출량변동



닭

- 닭 총사육수수는 1998년 3월 85,912천수, 12월 85,847천수에서 1999년 3월 89,806천수, 6월 108,451천수, 9월 100,567천수로, 3개월전 보다 7,884천수($\Delta 7.3\%$) 감소하였지만, 전년동기 보다 17,476천수(21.0%)가 증가됨.
- 이중 산란계는 1998년 3월 47,114천수, 12월 5,923천수에서 1999년 3월 47,503천수, 6월 49,650천수, 9월 51,162천수로, 3개월전 보다 1,512천수(3.0%), 전년동기 보다 6,936천수(15.7%) 증가함.
- 육계는 1998년 3월 32,781천수, 12월 34,671천수에서 1999년 3월 36,736천수, 6월 51,508천수, 9월 42,449천수로, 3개월전 보다 9,059천수($\Delta 17.6\%$) 감소하였지만, 전년동기 보다 9,415천수(28.5%) 증가
- 닭 사육수수가 증감된 요인은
 - 산란계: 1만수이상 대규모 사육농가 중심으로 사육마리수 증가
 - 10천수미만: (1998.9) 7,477천수 $\rightarrow$ (1999.6) 7,298 $\rightarrow$ (9) 6,746 (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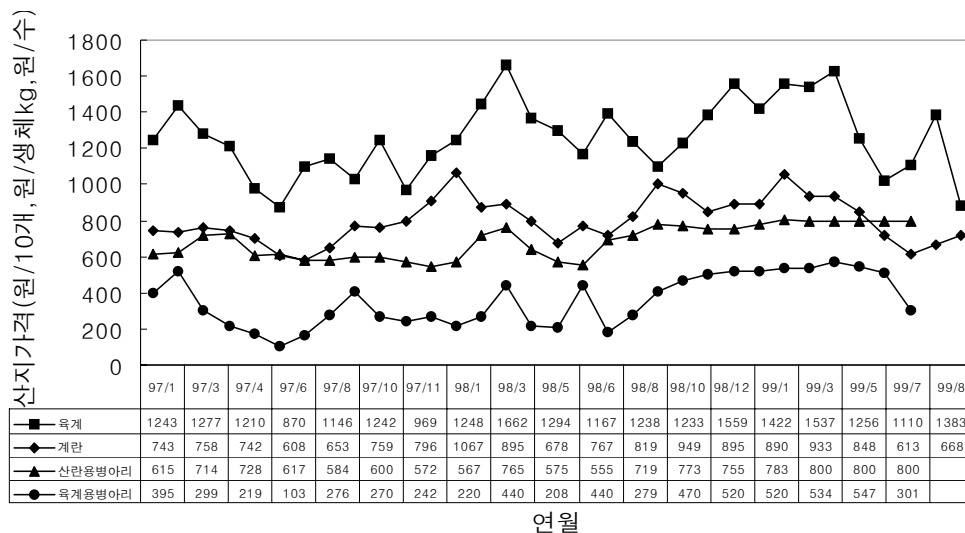
기대비 $\Delta 7.6\%$, 전년동기대비 $\Delta 9.8\%$ 감소)

- 10천수이상: (1998.9) 36,749천수 $\rightarrow$ (1999.6) 42,352 $\rightarrow$ (9) 44,416 (전분기대비 4.9%, 전년동기대비 20.9% 증가)
- 육계: 전분기대비 사육수수 큰폭 감소
- 여름철 성수기를 지나면서 도계마리수 증가, 수요 급감에 대비 사육수수 감소
- 도계마리수: (1998.6~7월) 66.4백만수 $\rightarrow$ (1998.12~1999.1) 52.3 $\rightarrow$ (1999.3~4) 54.5 $\rightarrow$ (6~7) 79.4 (1999.3~4월대비 45.7%,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

○ 양계산물 산지가격 변동

- 계란값(원/10개): (1997.12) 911 $\rightarrow$ (1998.3) 895 $\rightarrow$ (9) 1,004 $\rightarrow$ (12) 895 $\rightarrow$ (1999.2) 1,056 $\rightarrow$ (3) 936 $\rightarrow$ (4) 936 $\rightarrow$ (5) 848 $\rightarrow$ (6) 719 $\rightarrow$ (7) 613 $\rightarrow$ (8) 668 $\rightarrow$ (9) 716 $\rightarrow$ (1999.10.4) 623
- 육계값(원/kg): (1997.12) 1,152 $\rightarrow$ (1998.3) 1,662 $\rightarrow$ (9) 1,101 $\rightarrow$ (12) 1,559 $\rightarrow$ (1999.2) 1,554 $\rightarrow$ (3) 1,535 $\rightarrow$ (4) 1,628 $\rightarrow$ (5) 1,256 $\rightarrow$ (6) 1,019 $\rightarrow$ (7) 1,184 $\rightarrow$ (8) 1,383 $\rightarrow$ (9) 887 $\rightarrow$ (1999.10.4) 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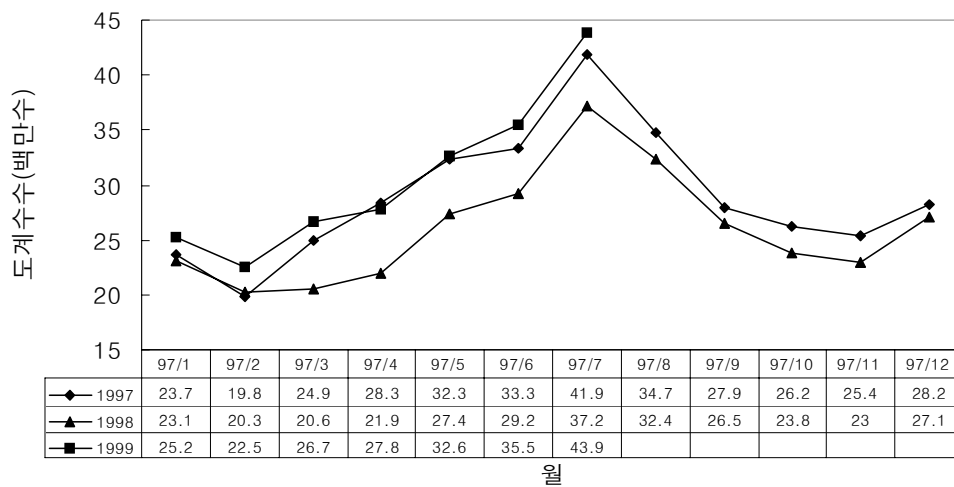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 병아리 생산

- 산란계 실용계 병아리 생산: (1998.1~7) 19,043천수 → (1999.1~7) 22,382천수(전년 동기대비 17.5% 증가)
- 육계용 병아리 생산: (1998.1-6월) 1,526천수 → (1999.1-6) 1,926천수 (전년 동기대비 26.2% 증가)

월별 도계수수 변동



(허 덕 작성)

Ⅵ. 농정 이슈

1999년 3/4분기 농업 관련 주요 보도 현황

이 자료는 각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 중에서 농업관련 이슈를 골라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의 기초가 되는 「지방일간지 농어촌관련 주요기사」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며 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동향리포트 폴더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개황

- 8월초 전국을 휩쓸고 간 태풍 ‘올가’ 영향으로 강원·경기북부의 농작물 침수와 충청·경남북 지역의 낙과피해 등 각 지역의 농작물 피해, 이후 9월 하순에 다시 태풍 ‘앤’과 ‘바트’로 이어진 태풍에 의한 수확기 벼 도복 피해가 경기 3,200ha, 경북 4,500ha, 전남 4,000ha 등 전국적으로 25,000여ha 인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상문제가 표면화되면서 농민들이 재해보상의 현실화를 요구
- 태풍 영향으로 충남지역에서는 낙과피해가 커 사과·배 등의 생산량이 크게 줄었으며, 농작물의 습해가 광범위하게 퍼진 경북 북부 지역은 고추역병이 확산, 재배면적의 20%까지 피해를 입었고, 제주지역에서는 8~9월 계속된 비로 콩·감자 등 밭작물이 60% 가까이 피해를 입어 피해액만 175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이 지역 최대 소득작목인 감귤이 적정생산량보다 15만 6천여톤이나 과잉생산될 것으로 보도
- 축산은 5백kg 수소 마리당 3백만원까지 오르는 등 산지 돼지와 소값의 급등관련 소식과, 한우 도축물량 중 암소의 도축이 50% 선을 육박하고 송아지값의 상승으로 농가에서 입식을 자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한

우 사육기반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2001년 축산물 완전 수입개방에 따른 향후 소값 불안정 등의 이유로 한우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 보도

- 교육부가 학생수 1백명 이하 소규모학교(농어촌학교)를 통폐합 한다고 밝힌 내용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경우 전체 초·중학교의 60%가 이에 해당되는 등 올 한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1천개가 넘는 학교가 이에 해당되어, 학부모와 농민단체는 귀농정책과 배치된다고 일제히 반발했고,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일방적인 통폐합 방침이 부분적으로나마 수정되는 계기가 됐으나, 제주지역만 통폐합을 사실상 백지화했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통폐합 추진 철회 운동 전개

2. 지역별 농업관련 보도 내용

경기

- 경기지역에서 농업을 포기한 농업경영인이 올 상반기에만 196명에 이르고 있으며, 농경지도 1990년 이후 매년 여의도 면적의 9배가 넘는 2,300만평씩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
- 평택지역에서는 무공해 쌀 생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리농법이 시·군의 판로개척 외면으로 5만m²에 달하는 재배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의왕시 청계화훼단지 3백여 입주 농가는 최근 화훼소비가 극히 저조한 가운데 타지역과 가격 할인 경쟁까지 벌이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보도
- 인천은 2001년까지 10만여평에 첨단 영농단지와 콘도 등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생태관광 영농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경기도도 2002년까지 성남 등 4개 도시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

-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 영향으로 극심한 수해를 겪었던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젓소의 유방염, 돼지의 경우 사료의 재급식에 따른 과식으로 설사병이 확산되는 등 축산농가들이 수해 후유증을 앓았고, 산지소값은 폭등세를 거듭, 5백kg 수소 마리당 3백만원을 호가했다가 9월 중순이후 보합세

강원

- 강원농업기술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44개 주요 농작물 중 생산성이 낮고 수급마저 불안정한 옥수수·감자 등 15개 열위 작목이 전체 경작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력 감소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
- 강원도의 산림면적이 공장부지 편입 등으로 해마다 감소해 사유림의 경우 지난 1993년보다 무려 18,000ha 정도가 감소
- 8월 중순 양구지역에서는 수해 이후 폭염이 지속되는 바람에 무와 배추가 썩고 변질돼 재배농가들이 수확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한편 9월말에는 계속된 비로 상추의 수확감소와 운송 등에 차질을 빚어 4kg 한박스에 최고 2만8천원을 호가하는 등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도. 반면, 영월지역에서는 고추의 과잉생산과 풍작이 겹치면서 가격이 폭락, 작년의 절반수준인 한근에 2천7백원까지 하락
- 8월말 강원도는 미국 꽃 수입업체와 화훼 수출계약을 체결, 올해 1차분 45,000 그루의 장미와 백합을 수출키로 하고 내년에는 1백만 그루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

충북

- 충북통계사무소는 1998 농가경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지역 농가의 호

당 평균 소득은 연 2,044만원으로 전년보다 4.1%가 감소했으며 자산대비 부채율은 12.7% 수준으로 전국적으로는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분석

- 충북은 21세기 종자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종자은행을 설치하고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외 우수종자 322종을 수집했으며, 매년 5백여점씩 2004년까지 3천여점을 확보할 계획. Y2K 문제가 예상되는 농업분야 자동화 시설 204곳 중 81%인 165개 시설의 문제가 해결됐고, 나머지 39곳도 순조롭게 진행
- 충주·음성·괴산·진천 등 4개 지역의 총 산림면적 183,200ha 가운데 사유림이 70%, 공유림이 21%인 반면 국유림은 15,700ha로 9% 밖에 되지 않아 조림과 간벌 등 각종 산림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도
- 고추 주산지인 제천의 올 고추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20% 늘어난 1,200ha에 달해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반면 옥천지역의 경우 수입농산물 범람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밭작물 재배 면적이 크게 줄어 보리·밀 등의 경작면적이 지난 5년간 3~5배까지 줄었음.
- 충북지역에서는 진천쌀이 가장 인기가 있어 이 지역 쌀 판매량의 50%를 점유

충남

- 9월14일 천안에 지자체와 농축협 등이 공동 출자한 지방공사 성격의 ‘중부농산물 물류센터’가 개장되어 중매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실현할 수 있는 신물류기지로의 역할 기대
- 충남도 전체 인구중 농가인구는 29.2%인 560,099명이고 이중 60세 이상 고령인이 1995년 25.9%에서 작년 31.2%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돼 농가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지난 2년간 농경지 850만평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 과수 농가들은 태풍 ‘올가’ 영향으로 낙과 피해를 크게 입어 사과·배 등의 생산량이 목표량의 절반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 한편, 논산 배가 맛과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미국과 5백20톤의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17억원의 외화획득
- 서산지역에 보급된 농기계는 이앙기 4,533대로 적정보유대수 2,027대 보다 2배나 초과됐고, 콤바인도 적정대수 보다 많은 1,00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과잉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농가부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충남지역 농어촌학교 통폐합 대상이 95곳에서 50곳이 준 45개로 축소됐고, 의료기관이 농민 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농부병을 앓고 있다고 보도

전북

- 전북도의 농가 호당 연평균 소득이 1,877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170여만원이나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고, 예금 등 자산은 25% 감소한 반면에 부채는 40% 증가했다고 보도
- 전주시는 관리와 운영이 이원화된 송천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자치단체와 농수축협이 참여한 공공출자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영화 방안을 발표
- 전북은 태풍 영향을 비교적 작게 받았고 병충해 피해도 예년의 절반 수준이라 더 이상 기상 악화만 없으면 올 벼 수확량이 목표치인 540여만석은 무난할 것으로 분석
- 전북지역의 산물벼 수매량은 매년 증가세로 1997년 152,000톤, 1998년에는

275,000톤에 이르고 있으나 산물벼를 처리해야할 미곡종합처리장은 농협 31곳과 민간 16곳 등 47개에 불과해 RPC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도.

- 전북지역의 과수 재배면적이 매년 늘어 작년말 6,100ha로 4년전 보다 40%나 늘었고 이에 따라 생산량도 1994년 비해 80%나 늘어난 68,000톤에 달한다고 보도
- 9월 중순까지 소값이 폭등세를 거듭한 가운데 전북지역의 암소도축이 전체 도축물량의 50%를 넘어 축산기반 붕괴의 우려와 172곳의 농촌특산단지 가 전문성 부족과 가격 경쟁력 상실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

전남

- 1998년말 현재 전남지역의 농업경영인과 전업농 3,200여명이 농촌을 떠났고 1997년 이후 농촌에 정착했던 'IMF 귀농자' 중에서도 10%가 넘는 293명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도시로 이주
- 광주전남농협지역본부는 228억원을 투입해 거점농협에서 일괄출하와 대금 정산을 완료하는 농산물 공동출하 광역유통망을 구축키로 했다고 발표, 이 사업에는 102개 회원농협과 24,000여 농가가 참여할 예정
- 전남지역 농산물 수출이 채소·화훼류의 신장세에 힘입어 8월말 현재 737만 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 보다 2.7배나 증가했으며. 무안지역 특산물 '황토양파' 162톤이 일본의 5대 농산물 도매시장에 직상장 됨으로써 수출에 활기
- 전남지역의 가을 무·배추 계약재배를 접수한 결과 가을 무 7,051톤, 배추 44,700톤 등 총 51,700여톤 신청에 그쳐 1997년 보다 5,700여톤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낮게 책정된 최저보장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전남지역 축산농가 83,000여호 중 7만여 농가가 10마리 이하 사육의 부업 농가로 조사돼 전업농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도했고, 낙농가들이 차량노선 배정과 집유장 확보에 따른 준비 소홀 및 유대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집유일원화에 반대

경북

- 경북지역의 농산물가공업체가 판로확보 실패와 마케팅 등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경영을 거듭, 올들어 8월 현재 38곳이나 퇴출되었고, 꽃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도 일본에 편중돼 있어 수출선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보도
- 경북북부지역에 집중호우 이후 ‘고추역병’이 확산돼 재배면적의 10~20% 정도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영주지역에서는 고추 6백g에 2,500~3,500원 선으로 작년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
- 경상지역의 복숭아 생산농가가 이상기온으로 인한 생산량 20% 감소와 소비부진에 따른 값 하락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영덕지역의 잎담배 재배농가들은 올해 수확량이 15% 가량 늘고 수매가도 올라 소득이 늘 것으로 기대
- 경북지역의 소 사육두수가 3월말 현재 42만두로 작년보다 21% 줄었고, 청도지역의 경우도 암소도축이 50%나 증가해 가임암소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보도

경남

- 환경농업 육성·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검사소, 농촌진흥원 등 5~6개 기관이 분담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되는가 하면 농민들은

서류발급이나 각종 검사시 불편을 겪고 있어 통합전담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경남지역의 농경지가 유기물 함량이 적정치에 미달하고 산성화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돼 지력강화를 위한 방안의 필요성 보도

- 경남지역의 벼 재배면적이 공공시설 건립과 타작물 재배의 확대로 작년보다 416ha 감소, 또한, 화훼수출이 일본에 96.2%나 편중돼 있고 품목도 장미가 대부분 이어서 수출선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보도
- 창녕 농협농업지도자교육원 내에 30억원을 들여 농기계 전시관을 설치, 10월초 개관하며 이곳에 각종 농기계 1,225종과 관련 CD를 비치할 계획이며, 거창군은 68억원을 들여 1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농촌폐기물 매립장의 건설을 발표
- 2001년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우려로 울산지역에서 한우사육 포기농가가 속출, 6월말 현재 4,053농가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3%가 줄었으며 합천지역에서도 7,600여 가구로 2년전 보다 1천여 가구가 감소하는 등 한우 사육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성군은 2003년까지 3단계로 나눠 한우개량과 브랜드화를 위한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제주

-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감귤 생산량 3차 관측 결과에 따르면 올 제주감귤 생산량은 적정생산량 60만톤보다 15만 6천여톤이 많은 75만 6,800여톤으로 조사됐고 하우스 감귤 생산량의 60%가 9월과 10월에 집중 출하될 것으로 보여 가격 하락 우려
- 서귀포시의 간이농산물 33곳 3천여평이 감귤 출하시기 4~6개월 정도 사용에 그쳐 감귤 출하가 끝나면 농산물 직판장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도

- 제주지역의 내년 마늘과 양파 희망 재배면적을 조사한 결과 올보다 각 17%, 6% 정도 늘어난 2,660ha와 765ha로 나타나 과잉생산이 우려
- 제주도가 축산물의 세계화를 겨냥, 양돈에만 적용했던 안정생산관리제도를 한우와 젓소에까지 확대하고 탈·병·공해없는 3N 전략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밖에 제주의 ‘탐라유통’은 2004년까지 100억원을 투입, 연간 27,000여두의 종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
- 제주도 교육청은 논란이 계속됐던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 최근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대상학교 26개교 중 2개교만 통폐합을 추진키로 함으로써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실상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백지화

1999년 농가경제 동향

1. 농가소득

- 1998년의 농가호당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12.7% 감소한 20,494천원으로서 1994년 수준임.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농업경영비는 증가한 반면에 도시가계의 소득감소에 따른 농산물의 소비감소로 농가의 농업수입이 줄어들어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2.2% 감소한 8,955천원임.
-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경기침체 및 실업증가로 겸업소득과 취업가구원의 임금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농외소득은 전년대비 19.6% 감소한 6,975천원임.
- 이전수입에 있어서 가족보조는 줄어들었으나 퇴직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 1997년과 비슷한 수준인 4,563천원임.
- 농가의 소득구성비중 농업소득과 이전수입의 비중이 약간 확대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농외소득의 비중은 낮아짐.

농가소득 추이

단위: 천원

연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계	조수입	경영비		
1990	11,026	6,264	9,078	2,814	2,841	1,921
1995	21,803	10,469	16,012	5,543	6,931	4,403
1996	23,298	10,837	17,284	6,447	7,487	4,974
1997	23,488	10,204	17,284	7,080	8,677	4,607
1998	20,494	8,955	16,630	7,675	6,975	4,563

자료: 통계청

- 경지규모별 농가소득은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이 높음.
- 0.5ha 미만인 농가는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한 반면에 농외소득의 비중은 58.1%를 점하고 있음.

- 2ha 이상인 농가는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고 있음.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단위: 천원

경지규모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계	조수입	경영비		
0.5ha미만	16,032	2,568	6,816	4,248	9,321	4,142
0.5 - 1.0	17,425	5,625	10,344	4,719	7,403	4,397
1.0 - 1.5	20,933	9,612	17,510	7,897	6,108	5,212
1.5 - 2.0	22,712	12,846	22,327	9,481	5,844	4,044
2.0 - 3.0	26,652	16,559	29,621	13,062	5,326	4,766
3.0 - 5.0	31,498	22,144	39,183	17,039	5,315	4,040
5ha 이상	44,248	30,226	57,233	27,007	7,908	6,114

자료: 통계청

- 지대별 농가소득은 도시근교, 평야 및 산간지대가 비슷한 수준인 반면에 중간지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 특히, 산간지역에서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1%로 가장 높음.

지대별 농가소득

단위: 천원

연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계	조수입	경영비		
도시근교	22,648	7,712	14,778	7,067	10,787	4,150
평야	22,134	10,905	20,429	9,524	6,496	4,732
중간	19,733	8,541	16,114	7,574	6,778	4,413
산간	22,207	11,781	19,602	7,821	5,910	4,515

자료: 통계청

2. 농업소득

- 농업소득은 농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제한 것으로서 1998년 호당 평

- 군 농업소득은 8,955천원으로 1997년 10,204천원보다 12.2% 감소함.
- 비료, 농약, 농기구 등 영농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농업경영비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7,675천원임.
 - 농산물 소비감소로 농업조수입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16,630천원임.
- 농업조수입중 농작물조수입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14,576천원임. 채소류의 경우 농가판매가격 상승으로 15.2%, 과실과 서류는 생산증가로 각각 28.3%, 119% 증가하였기 때문임.
- 반면, 농작물 이외수입은 축산물가격의 하락과 사육두수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3.9% 감소한 2,054천원임.

농업조수입 추이

단위: 천원

연도	조수입	농작물 수입					
		계	미곡	맥류·잡곡	두류	서류	채소류
1990	9,078	7,470	4,380	216	161	91	1,448
1995	16,012	12,013	5,450	259	175	163	3,386
1996	17,284	14,184	7,049	271	208	167	3,808
1997	17,284	14,177	7,370	196	187	168	3,498
1998	16,630	14,576	6,703	211	180	368	4,030

연도	농작물 수입			농작물 이외수입			
	특용작물	과수	기타	계	축산물	양축	기타
1990	387	712	74	1,608	258	1,298	52
1995	805	1,542	233	3,999	412	3,509	78
1996	733	1,666	282	3,099	330	2,709	60
1997	816	1,651	290	3,107	295	2,763	49
1998	702	2,119	262	2,054	409	1,612	33

자료: 통계청

- 1998년 농업경영비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7,675천원임.
-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비료비 22.3%, 농약비 40.3%, 농구비 14.3%, 영농광열비 14.5%가 각각 증가함.

- 가축 사육두수의 감소에 따라 사료비와 가축구입비는 각각 15.2%, 40.6% 감소함.
- 노임은 1997년 수준인 495천원을 유지함.

농업경영비 추이

단위: 천원

연도	경영비	자재 및 가축비					
		계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농구비	영농광열비
1990	2,814	1,600	122	201	188	333	55
1995	5,543	3,591	270	345	350	807	146
1996	6,447	4,167	272	377	389	916	185
1997	7,080	4,406	292	367	432	1,071	235
1998	7,675	4,690	358	449	606	1,224	269

연도	자재 및 가축비			노임	임차료 및 수리비	기타농업 지출
	가축구입비	사료비	기타			
1990	69	478	156	281	709	224
1995	175	1,086	412	441	1,099	411
1996	183	1,421	423	489	1,289	502
1997	160	1,464	386	496	1,264	914
1998	95	1,242	466	495	1,282	1,208

자료: 통계청

3. 농가 가계비

- 1998년도 농가 호당 평균 가계비는 16,442천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가소득의 감소에 따른 농가의 가계비 지출은 모든 항목에서 감소를 하였음.
- 음식물비는 전년대비 1.2% 감소한 3,445천원임.
- 광열수도비는 전년대비 5% 감소한 670천원임.
- 교육·교양오락비는 전년대비 3.3% 감소한 1,850천원임.
- 주거비는 전년대비 20.6% 감소한 974천원임.

- 피복비는 전년대비 26.7% 감소한 470천원임.
- 가계비에 대한 음식물비의 비율인 엔겔계수는 1998년 20.9%임. 1990년 23.5%에서 1997년 20%까지 줄었다가 이후 약간 증가하였음.
-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는 1990년 76.1%에서 계속 떨어져 1998년에는 54.5%로 줄어들었음.

농가 가계비 지출 추이

단위: 천원

연도	가계비	음식물비	광열수도비	교육·교양오락비	주거비	피복비	가계잡비
1990	8,227	1,933	243	934	645	378	4,095
1995	14,782	3,118	484	1,703	1,187	627	7,663
1996	17,039	3,411	583	1,895	1,199	677	9,274
1997	17,045	3,486	705	1,913	1,226	641	9,075
1998	16,442	3,445	670	1,850	974	470	9,033

자료: 통계청

4. 농가자산 및 부채

- 1998년말 현재 농가 호당 평균자산은 전년대비 4.2% 늘어난 192,335천원임.
 - 농업용 토지, 건물 및 영농시설물, 대동식물 및 대농기구를 포함하고 농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정자산은 전년대비 7.5% 늘어난 164,632천원임.
- 농가자산중 유동자산과 유통자산은 감소하였음.
 - 재고농산물 및 재고농자재 등 유동자산은 전년대비 9.8% 감소한 4,612천원임.
 - 보유현금, 예금, 대부금,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인 유통자산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23,091천원임.

농가 자산 추이

단위: 천원

연도	농가자산	고정자산			유동자산	유통자산
		계	토지	건물·영농시설물		
1990	79,352	69,667	59,190	6,490	3,160	6,526
1995	158,171	134,334	105,444	19,306	4,098	19,739
1996	168,901	142,665	111,080	21,772	5,052	21,184
1997	184,503	153,149	120,724	23,465	5,113	26,241
1998	192,335	164,632	122,836	31,337	4,612	23,091

자료: 통계청

- 1998년말 현재 농가호당 평균 부채는 전년대비 30.7% 증가한 17,011천원에 이르고 있음.
 - 농업자금 등 전체 농가부채의 76.2%를 점하고 있는 생산성부채는 전년대비 32.5% 늘어난 12,958천원임. 이중에서 농지 및 시설물의 부채가 6,160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농구 부채가 1,965천원임.
 - 관혼상제, 교육 및 문화용품 등 가계성부채는 전년대비 49.5% 늘어난 2,553천원임.
 - 차입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부채는 전년대비 3.8% 줄어든 1,400천원이었음.
- 농가부채를 차입처별로 보면 대부분의 부채를 농협·축협·수협 등의 제도금융으로부터 차입하고 있음.
 - 개인차입 등 사채의 비율은 1998년 4.6%로서 1990년 13.9%에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농가 부채 추이

단위: 천원

연도	농가부채	생산성부채				가계성부채	차입금상환 및 이자
		계	농업자금	겸업자금	재산적지출		
1990	4,734	3,147	2,639	162	346	1,015	573
1995	9,163	7,331	6,351	403	576	1,110	722
1996	11,734	9,136	7,548	748	840	1,458	1,140
1997	13,012	9,781	8,101	731	949	1,775	1,456
1998	17,011	12,958	10,609	1,123	1,226	2,653	1,400

자료: 통계청

(성명환 작성)

유가 상승이 시설원예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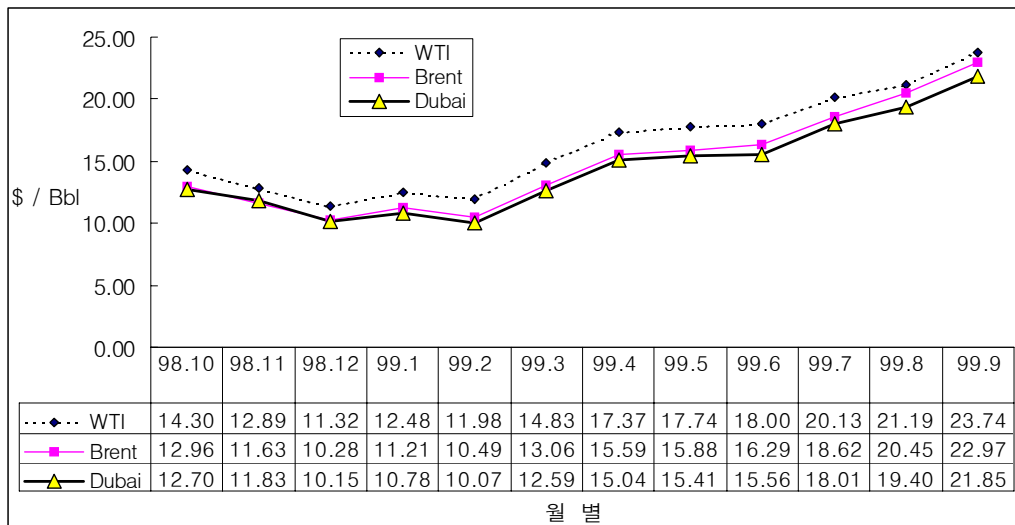
1. 유가 변동 현황과 전망

1.1 유가동향

○ 원유가격의 추이

- 1998년말 배럴당 10달러 내외이던 국제원유가격이 OPEC의 감산정책 등 유가 부양을 위한 산유국의 공조로 꾸준히 인상되어 1999년 9월 20달러 수준으로 2배나 상승하였으며 최근 9월 말경 2주간의 원유가격이 폭등하여 25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음.

월 평균 원유가 추이 (1998.9 ~ 1999.8)



○ 국내 유류가격(면세유)의 추이

- 국내유가는 국제원유가, 환율, 각종세금 등과 연동되기 때문에 IMF 사태시에는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최근에는 환율이 1,200원 대로 안정적이어서 국제원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 국내유가의 변동은 바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침.

- 1995년 1월 1당 554원이던 휘발유 판매가격이 IMF 이전인 1997년 10월에는 819원이었으나 IMF 이후에는 1,100~1,200원 수준에 이름.
- 농업용 면세유의 가격은 유종에 따라 다르지만 1997년 12월 환률의 급등으로 1당 500~600원이던 것이 점차 환률이 안정됨에 따라 1999년 1월 200원 대로 하락하였다가 최근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300원대로 인상되었음.

최근 2주간 일일 원유가 (1999.9.20 ~ 10.1)

단위 : 달러/Bbl

유종	9/20	9/21	9/22	9/23	9/24	9/27	9/28	9/29	9/30	10/1
WTI	24.36	24.51	24.83	25.35	25.52	24.59	24.46	24.63	24.49	24.55
Brent	23.04	23.02	23.34	24.14	24.41	24.43	24.05	24.05	23.83	23.94
Dubai	21.81	21.80	22.12	22.78	23.00	23.01	22.78	22.82	22.63	22.78

자료 : 한국석유평가사 석유정보처

1.2 원유가격 전망

- 1999년 연말 원유가격 전망
 - OPEC의 감산 지속 및 동절기 수요 증가 등이 맞물려 향후 국제원유가격은 당분간 배럴당 24~25달러 내외의 강세를 지속할 전망으로 연초 대비 약 100% 상승한 것임.
 - 혹한 내습에 의한 급격한 수요증가 또는 돌발적인 공급차질 사태라도 발생할 경우 국제원유가격은 27달러 내외로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일별 원유 및 면세유 가격의 추이

단위: 원/ℓ

일 자 별	원유가격(\$/Bbl)	환율(원/\$)	면 세 유 류 가 격		
			휘발유	등유	경유
1997.12.19	15.95	1,618	509	514	607
1998. 1.19	13.75	1,622	583	598	589
2.20	12.30	1,696	538	537	428
3. 3	11.58	1,571	429	448	437
5. 3	13.50	1,335	272	316	323
6. 1	12.62	1,411	317	310	316
8. 1	12.90	1,236	307	300	312
9.17	13.24	1,377	317	282	316
11.10	11.77	1,314	314	346	295
12. 1	9.80	1,248	277	295	235
1999. 1.30	10.82	1,175	271	290	240
3.30	14.36	1,227	285	318	256
5.30	14.70	1,191	321	353	285
7. 1	16.65	1,159	317	351	280
8.16	19.13	1,208	326	360	290
9.16	21.94	1,198	347	379	310

자료: 농협중앙회 농업기계화사업단 및 한국은행

1999년 시나리오별 유가 전망 (Dubai기준)

단위 : 달러/Bbl

	1999 1/4분기	2/4	3/4	4/4	연 평균
기 준 시나리오	11.5	15.34	19.88	23.75	17.53
비 관 적 시나리오	11.5	15.34	19.88	27.20	18.39

주: 1) 기준 시나리오 : 4/4분기, 세계 석유수요 전년대비 1.85% 증가, OPEC의 감산이행률 85%, 非OPEC 1% 공급증대 가정.

2) 비관적 시나리오 : 4/4분기, 세계 석유수요 전년대비 2.5% 증가, OPEC의 감산이행률 95% 가정.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0년도 유가 전망

- OPEC의 감산시한이 끝나는 내년 봄을 전후해서는 현 강세추세가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이는 석유수요측면에서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고, 그 동안의 고유가로 인해 소비국(특히 아시아)들의 석유 소비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2000년 원유가격은 OPEC의 산유량 재조정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가지 시나리오로 전망(안)을 구성할 수 있음.
- 전망의 기본적 가정은 세계 석유수요가 연간 2% 수준으로 증가되고, 원유가격 회복에 따라 非OPEC의 원유 공급이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내년도 유가는 배럴당 \$20(Dubai유 기준)대의 고유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2000년 시나리오별 유가 전망 (Dubai 기준)

단위 : 달러/Bbl

	구 분	1/4	2/4	3/4	4/4	연평균
시나리오 I	OPEC 연초 산유량 상향 재조정	22.50	20.25	19.50	20.75	20.75
시나리오 II	OPEC 3월 이후 산유량 상향 재조정	25.50	22.75	20.00	21.50	22.44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1.3 국내 유류(면세유) 가격의 변화와 영향

- 국내 유가가 1997년 1월 이후 자율화되어 국제원유가격이나 환율의 변화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이 어떻게 가격을 결정할지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국내 유류가격을 전망하는데 애로가 있음.
- 타 요인이 고정된 상태에서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국내 유가는 1ℓ당 14원의 인상요인이 있음(한국석유공사 분석).
- 금년도 4/4분기 국제 원유가격은 기준시나리오에 따르면 배럴당 24달러

- 수준으로 연초 12달러 수준에서 약 100% 상승하고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약 27달러 수준으로 약 14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금년도 4/4분기 면세유가는 연초 대비 ℓ 당 168~220원의 상승요인이 발생되고 이는 경유 기준 70~92% 인상되는 것임.
- 1998년 면세유를 농가호당 약 1,400 ℓ 소비하였으므로 면세유 가격이 1원 인상되면 농가에는 연간 약 1,400원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됨.
- 전망치와 같이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농가 호당 연간 추가부담액이 약 24~31만원에 이를 것이며 농가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약 3,000~4,400억원의 광열·동력비 추가 부담이 발생함.
- 특히,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인상되면 겨울철 유류 소비가 많은 시설원예 농가의 광열비가 대폭 증가하여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임.

2. 유가 상승과 시설원예

2.1 시설원예 현황

- 시설원예 면적은 소비의 주년화와 고급화, 정부의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1998년 시설재배 면적은 총 85.3천ha(전체 원예작물의 23.3%)로 1990년에 비해 약 2배 성장
- 원예작물 재배시설 중 유리온실과 같은 첨단시설의 비중이 증가하여 에너지 다소비적인 시설로 발전하여 왔음.

시설원예 면적 (1998)

단위: 천ha

	총 재배면적 (A)	시설재배면적 (B)	시설비율 (%)
채 소	360.0	82.0	22.8
화 훼	5.5	3.3	60.0
계	365.5	85.3	23.3

자료: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화훼재배현황」, 1999.

- 시설원예작물은 겨울철 가운을 통한 축성재배 및 연중재배로 인해 타 작물에 비해 전체 경영비 중에서 광열동력비(대부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오이, 토마토, 장미의 경우 경영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내외로 쌀의 0.9%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가격이 인상될 경우 경영비가 상승되어 시설원예농가의 소득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주요 시설원예작물의 유류비 비중

단위: 천원/10a

	오 이	토마토	장 미	쌀
조 수 입	16,435	10,623	18,803	928
경 영 비	6,110	4,295	9,440	228
광 열 동 력 비	1,972(32.3)	1,305(30.4)	2,833(30.0)	2(0.9)
광열동력비중 유류비	1,867(30.6)	1,256(29.2)	2,758(29.2)	-
소 득	10,324	6,327	9,363	700

주: 1) 오이, 토마토는 축성 기준.

2) ()안은 경영비에 대한 구성비임.

3) 유류비 산정기준 : 오이 6,913ℓ×270원(1997. 10월 면세유 경유 가격), 토마토 4,927ℓ×255원(1997. 8월 면세유 경유 가격), 장미 9,348ℓ×295원(1997년 면세유 경유 평균가격).

자료: 농촌진흥청, 「'97 농축산물표준소득」, 1998.

2.2 유가변동 시나리오별 소득 변화

- 국제 원유가 인상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이 10~40% 인상될 경우 경영비가 3~12% 상승하게 되어 시설원에 농가의 소득이 2~12%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오이의 경우 면세유 가격이 30% 인상될 것으로 가정할 때 소득은 5.4%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토마토와 장미의 소득감소율은 각각 5.9%, 8.8%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장미는 연중재배로 인해 유류비 사용량이 타 시설작물에 비해 많기 때문에 유가 인상에 따른 소득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유가 상승 시나리오별 경영비 변동

단위: 천원/10a

	97년 표준소득 기준			유가 상승 시나리오							
				10% 인상		20% 인상		30% 인상		40% 인상	
	조수입	경영비	소득	경영비	소득	경영비	소득	경영비	소득	경영비	소득
오 이	16,435	6,110	10,324	6,296	10,139	6,483	9,952	6,669	9,766	6,856	9,579
토마토	10,623	4,295	6,327	4,421	6,202	4,547	6,076	4,672	5,951	4,798	5,825
장 미	18,803	9,440	9,363	9,715	9,088	9,991	8,812	10,267	8,536	10,543	8,260

주: 면세유 가격 상승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비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후 시나리오별로 경영비 변화를 추정하였음.

- 국제 원유가 인상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40% 정도 인상될 전망으로, 시설원에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수출 화훼와 청과류의 원가상승이 될 것임.

2.3 시사점

2.3.1 대응 전망

-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난방비 절감을 위해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것임.
 - 재배포기
 - 재배방법 개선 : 재배시기 조절(촉성→반촉성), 저온재배, 무가온재배
 - 시설보완 : 지중가온시설, 보온시설 보강(보온덮개, 커튼), 수막시설 등
 - 대체·보조에너지 활용 : 연탄·화목·페타이어 등 저가연료 활용 및 태양열·LPG·병커C유 난방기 등 보조시설
- IMF 사태 직후 농가의 대응 사례
 - IMF 사태 직후 시설원에 농가의 50% 정도가 저온재배를 선택하였고, 가온 중단 또는 재배포기 농가도 상당수에 이름.
 - 적정온도를 유지한 농가는 30%미만으로 이들 농가는 영년생 작물 재배 또는 수출 농가들이었음.

난방비 절감을 위한 농가의 대응 방법

단위: %

	저온재배	적정온도 유지	가온중단	정식늦춤	재배포기	기 타	계
채 소	49	26	-	11	5	9	100
화 화	51	28	15	-	-	6	100

자료 : 농가현지조사

2.3.2 예상되는 문제

- 재배포기, 저온재배, 재배시기 조절 등에 의한 생산량 감소로 일부 품목의 경우 수급 불균형이 예상됨.
 - 특히, 수출물량의 지속적 확보가 불투명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신선농산

물의 수출 차질이 예상되며, 수출선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유가인상에 따라 항공, 해운, 육상 운송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수출원가의 상승이 불가피 함. 수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
 - 국내 항공료의 경우 이달 중순부터 16%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
- 시설 개선 및 보완을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한 바 추가투자액 만큼 농가의 경영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유리온실 1,000평 규모의 난방시설 교체시(경유 시설→병커C유 시설) 약 1,000만원 소요
- 대체·보완시설의 경우 시설의 성능과 경제성이 규명되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지고 저품위 상품이 생산될 수 있음. 또한 연탄난로 사용시 유해가스로 인해 생육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

2.3.3 대응 전략

- 농업용 면세유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면세유 공급량 확대
 - 1999년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 2,049천kl 중 8월말 현재 62.6%가 사용되어, 유류 소비가 가장 많은 겨울철에 면세유 부족이 예상됨.
- 고온성 작물(오이, 풋고추)은 남부지방, 저온성 작물(배추, 상추, 딸기)은 중부지방에서 생산하는 등 지역별 적정 작목 선택 장려
- 중북부지방은 반촉성·조숙재배, 남부지방은 촉성·억제재배하는 등 작기 선택과 작물별 온도관리, 관수방법의 개선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기술 및 저온재배 기술을 확산
- 유류 절감을 위한 대체·보완시설 희망농가에 자금 지원

일본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 고비용 시설은 수출품목 위주로, 일반 시설은 내수품목 위주로 생산기반의 분화를 추진하고, 기존시설의 열효율 개선에 지원 확대

(박현태, 김철민, 박기환 작성)

1. 머리말

- WTO체제하에서, 미국은 1996년 4월 「1996년 농업법」을 제정, 1996—2002년간 한시적으로 생산조정을 폐지하는 대신 직불제를 도입하고 있음. 최근에는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 수입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경영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 EU는 UR협상과정인 1992년 공통농업정책을 개혁,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고, 또 1999년 3월 「어젠더 2000」을 확정, 2000—2006년간의 농정방향을 결정하였음.
- 한편, 일본은 1999년 4월부터 쌀 관세화를 단행하고, 또 6월에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 1999—2003년간의 「농정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종래와는 다른 정책추진을 시도
- 이러한 농정개혁의 과정에서 선진국 농정은 WTO협정의 녹색정책(Green Box)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EU와 일본의 농정개혁에서는 농업에 있어서 효율성 추구하고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의 발휘를 이념으로 하고 있음. 상호 대립되는 두가지 이념을 양립시키는 정책수단으로서 직접지불제를 활용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00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실시를 목표로, 지난 8월 13일 중산간지역직불제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음.
- 일본에서 직불제에 대한 논의는 학계·농업단체 등을 중심으로 1992년 신 농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농림성에서의 공식적인 논의는 1996년 「농업기본법연구회」의 보고에서 시작하여, 1999년 8월 「중산간지역직 불제검토회」의 직불제검토 보고에서 직불제 실시방안이 확정되었음.
- 조건불리지역(중산간지역) 직불제 실시를 둘러싸고, 지난 4년간의 논의과 정에서 농림성 내부에서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인식, 검토과정에서의 주 요 논점, 그리고 실시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정리

2. 중산간지역 직불제 검토과정

2.1. 중산간지역의 역할

- 평야의 외연부에서 산간지에 이르는 중산간지역은 하천의 상류지역에 위 치하면서 농업생산활동을 통하여 국토 보전, 경관형성 등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고, 전국민의 생활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중산간지역은 다양한 식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전통문화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주민에 대하여 보건휴양의 장을 제공하는 등 다면적인 기 능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기능을 평가하면, 약 3조엔을 초과하고 있음.

농업이 가지는 외부경제효과의 평가

기 능	평가액(억엔/년)	
	전 국	중산간지역
홍수방지	28,789	11,496
수자원함양	12,887	6,023
토양침식방지	2,851	1,745
토사붕괴방지	1,428	839
유기성 폐기물처리	64	26
대기정화	99	42
기후완화	105	20
보건휴양	22,565	10,128
합계	68,788	30,319
참고(농업조생산액 1995년)	105,846	38,913

자료 : 농림수산성 농업종합연구소, 1998

2.2 직불제에 대한 검토과정과 논점

2.2.1. 농업기본법연구회 보고(1996. 9)

- 농업기본법연구회는 신기본법 제정을 위한 검토시에 농촌지역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직불제에 대한 검토를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음.

- 농업기본법연구회 보고

☐ 중산간지역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지 등의 자원을 관리하는 주체의 육성 여부도 포함하여 어떤 시책을 강구할 것인가, 또 그 경우에 직접소득보상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2.2. 식료·농업·농촌기본문제조사회 중간보고(1997. 12)

- 이 보고에서는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으로서, 직불제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EU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으로 나누어져, 최종 답신까지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음.

- 식료·농업·농촌기본문제조사회 중간보고

□ 직불제 도입에 적극적인 의견

- ① 중산간지역은 농업생산조건이 불리하여 적절한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② 생산활동을 통하여 경제외적인 가치가 생산됨. 이것을 국민 다수가 수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헌을 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 ③ 농업 수익성이 낮고, 겸업기회도 불리한 중산간지역에서는 정주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보다 직접적인 소득확보조치가 필요함.

□ 직불제 도입에 소극적인 의견

- ① 일본과 조건이 다른 EU형 직불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영세한 농업구조를 온존시키고 농업자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킬 우려가 있음.
- ② 다양한 주민으로 구성되는 지역사회에서 농업인만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함.
- ③ 작목 구성·토지이용 면에서 평지지역과 중산간지역 간에 EU만큼 큰 차이가 없는 일본에서는 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려움.

2.2.3. 식료·농업·농촌기본문제조사회 답신(1998. 9)

- 이 답신에서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불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의견 통일이 이루어졌음. 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지역, 대상자, 대상행위, 지자체의 역할, 재원 등 검토항목을 제시하였음.

- 식료·농업·농촌기본문제조사회 답신

□ 중산간지역의 직불제 도입

- 중산간지역에서 다양한 식량생산과 다면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농업생산활동을 행하는 자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은, 정책지원이 필요한 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되고 시책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새로운 공공 지원정책으로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직불제는 기존의 다양한 농업정책과의 관계, 정책의 비용과 효과, 지자체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대상자, 대상행위, 재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토해야 함.

2.2.4. 농정개혁대강(1998. 12)

- 농정개혁대강에서는 다면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직불제를 2000년부터 도입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인 검토항목 별로 검토방향을 결정, 이를 「중산간지역직불제검토회」를 설치, 검토하기로 하였음.

○ 농정개혁대강

☐ 중산간지역에서 경작포기를 방지,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정책과 정합성을 도모하면서 2000년도부터 직불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행함.

☐ 검토방향

- 대상지역 : 특정농산촌법의 지정지역 중, 경사 등에 의해 생산조건이 불리하고 경작포기지의 발생 우려가 큰 일단의 농지
- 대상행위 : 경작포기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락협정에 근거, 5년 이상의 농업생산활동 등
- 대상자 : 협정에 근거한 농업생산활동 등을 행하는 자
- 단가 : 중산간지역과 평지지역과의 생산조건 격차의 범위내
- 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긴밀한 연계 하에 실시
- 기간 : 농업수익이 향상되어, 대상지역에서 계속적인 농업생산활동 등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실시

3. 중산간지역 직불제의 주요 내용

3.1. 검토원칙

3.1.1. 도입의 필요성

- 중산간지역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고령화의 진행, 생산조건의 불리성 때문에 경작포기지가 증가하여 다면적 기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경작포기의 발생을 방지하여 다면적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직접지불은 외부경제효과에 대해 직접 작용하여, 경작포기의 요인이 되는 생산조건의 불리성을 직접적으로 보완, 적절한 농업생산활동을 유지하여 중산간지역의 다면적 기능의 유지·발휘를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

3.1.2. 검토원칙

- 정책지원이 꼭 필요한 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함.
- 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지에 대하여, 경작포기를 방지하여, 공익적 기능을 계속적, 효과적으로 발휘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도모함.
- 광범위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합리적·객관적인 기준하에 투명성을 가지면서 실시함.
- 직접지불은 농업수익 향상, 생활환경정비 등에 의해 당해지역의 농업생산활동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실시함.
- WTO농업협정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

이 있으며, 이와 정합적으로 실시함. 즉, 조건불리지역이란 불리성이 일시적 사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규정된 중립적·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또 지불액은 생산의 형태·양, 국내가격·국제가격에 관련해서는 안되며, 당해 지역에서 농업생산에 따른 추가비용 또는 수입상실이 한도가 됨.

3.2. 중산간지역 직불제의 주요내용

3.2.1. 대상지역 및 대상농지

- 대상지역은 특정농산촌법 등의 지정지역으로 하고, 대상농지는 이 중, 경사 등에 의하여 생산조건이 불리하고, 경작포기지의 발생 우려가 큰 농용지구역내 일단의 농지로 하고, 지정은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시정촌장이 함.
- 대상 지역은 (가)의 지역진흥입법의 지정지역 중, (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조건이 불리한 1ha 이상의 정확한 구분이 되는 농지로 함.

(가) 대상지역(자연적·경제적·사회적 조건이 나쁜 지역)

- 특정농산촌, 산촌진흥, 과소, 반도, 이도, 오끼나와, 아마미 및 오가사와라의 지역진흥입법 8법의 지정지역

(나) 대상농지(농업생산조건이 나쁜 농지)

- ① 급경사농지 등 (논 : 1/20이상, 밭·초지·채초방목지 : 15도 이상)
- ② 자연조건에 의해 소구획·부정형인 논(대다수가 30a미만으로 평균 20a 이하)
- ③ 초지비율이 높은(70%이상) 지역의 초지

3.2.2. 대상행위

- 대상행위는 경작포기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락협정」 또는 제 3섹터 및 인정농업자 등이 경작포기포기된 농지를 인수하는 경우 「개별협정」에 근거하여, 5년이상 계속된 농업생산활동 등으로 함.

(가) 대상이 되는 농업활동 등

- 농업생산활동 등을 추가하여, 다면적 기능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행위로서 부락이 그 실태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실시함.

(나) 부락협정에 규정하는 사항

- ① 대상지역의 범위(대상농지)
- ② 구성원의 역할분담
- ③ 직접지불의 배분방법
- ④ 대상행위로서 추진사항
- ⑤ 생산성 및 수익의 향상에 의한 소득증가, 경영주체의 정착 등에 관한 목표
- ⑥ 식료자급을 향상에 기여하도록 쌀·맥류·대두·초지축산 등에 관한 생산 목표
- ⑦ 부락의 종합력 발휘에 기여하는 사항(이하, 항목 예시)
- ⑧ 장래의 부락상에 대한 마스터플랜
- ⑨ 시정촌의 기본방침에 의해 규정해야 할 사항

(다) 개별협정

- 임차, 농작업수탁 등에 의하여 인정농업자 및 제3섹터가 경작포기 농지를 인수하여 행하는 농업생산활동 등으로 함.

(라) 협정위반의 경우 직접지불의 반환과 불가항력시의 면책

- ① 일부농지에 대해서 경작포기가 발생하고, 부락 내외의 관계자 중에서 이것을 인수할 자가 존재하지 않아 협정을 위반한 경우, 협정참가자에

대해 직접지불을 반환함.

②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으로서 반환은 면책됨.

- (ㄱ) 농업인의 사망, 질병 등의 경우
- (ㄴ) 자연재해의 경우
- (ㄷ) 토지수용을 받은 경우
- (ㄹ) 승인을 받아 조림을 한 경우

3.2.3. 대상자

- 대상자는 협정에 근거, 5년이상 계속해서 농업생산활동 등을 행하는 자로 함.
- ① 부락협정에 관련되는 농지의 경작, 농지관리 등을 행하는 자
- ② 부락협정에 관계된 수로, 농도 등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수리조합, 토지개량구 등
- ③ 개별협정에 관계된 농지의 경작을 인수하는 인정농업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정촌장이 인정한자 및 제 3섹터, 생산조직 등

3.2.4. 단가

- 단가는 중산간지역 등과 평지지역과의 생산조건 격차의 범위내에서 설정함.
- ① 생산성 향상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관점에서, 평지지역과 대상농지와의 생산조건 격차(비용차)의 80%로 한다. 호당 수급상한은 100만엔으로 함.
- ② 논·밭·초지·채초방목지별로 단가를 설정하는 동시에, 원칙으로 급경사농지와 그 이외 농지로 생산조건 격차에 따라 2단계의 단가를 설정

직접지불액 단가

지목	구분	단가(엔/10 a)
논	1/20이상	21,000
	1/100-1/20	8,000
밭	15도 이상	11,500
	8-15도	3,500
초지	초지율 70% 이상	1,500
	8-15도	3,000
	(15도 이상)	(10,500)
채초방목지	15도 이상	1,000
	8-15도	300

주 : (1) 소구획·부정형인 논, 고령화율·경작포기율이 높은 농지는 환경사지와 동액으로 함.

(2) 신규취농, 인정농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정촌장이 인정한자가 조건불리농지를 인수하여 규모확대하는 경우는 일정액(논 1,500엔, 밭 및 초지 500엔)을 추가함.

3.2.5. 지불 기간

- 농업수익이 향상하여 대상지역에서 농업생산활동 등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실시함.
- 사업자체는 5년간을 단위로 개별부락은 제2단계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경우에 다음단계가 직접지불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3.3. 추진체제

3.3.1. 비용분담

- 지정대상은 90만ha, 사업비는 초년도 700억엔으로 예상하고, 이 중 국비 330억엔, 지방비 370억엔으로 분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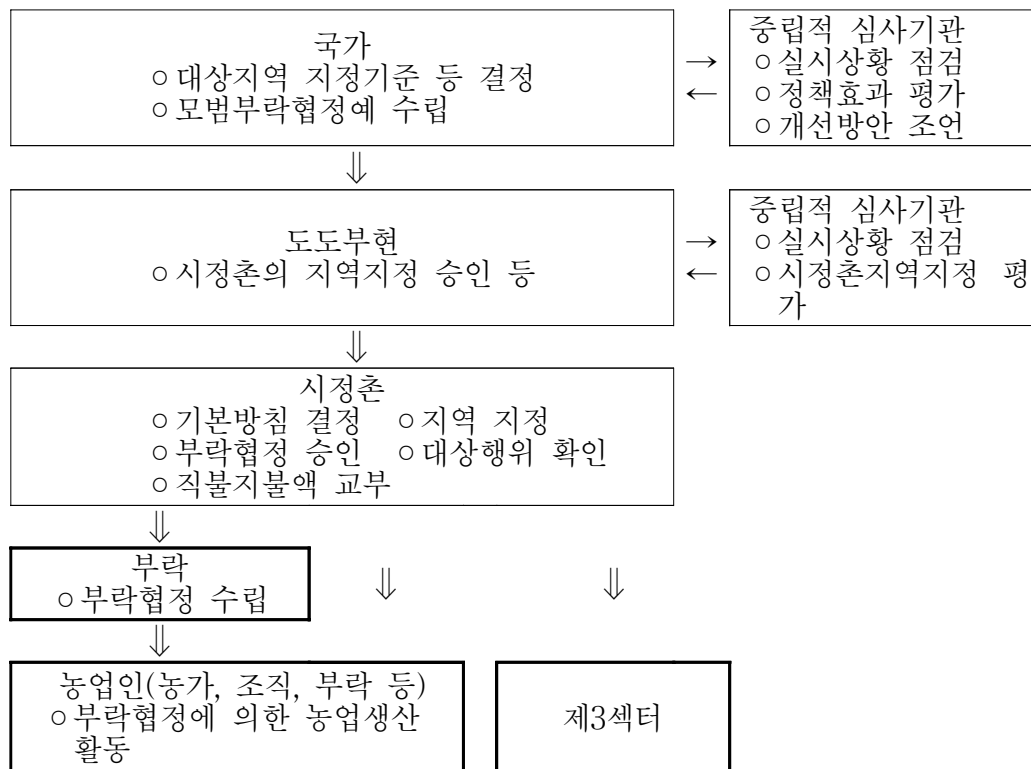
3.3.2. 추진체제

- 추진체제는 그림과 같으며, 국가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기초자치단

체장이 지역지정, 대상행위 확인, 지불액 교부 등을 수행함.

-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광역자치단체에 실시상황을 점검하면서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제3자 기관」을 설치, 운용함.

직접지불제 추진체제



4. 요약과 과제

- 일본에서는, EU에 비해 25년정도 늦었지만, 중산간지역 직불제 방안을 4년간의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중순 확정하였음.
- 그 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일본 농업의 실태를 감안하여 직불제의 필요성은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였지만, EU형의 직불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과 소극적인 의견으로 양분되었음. 검토과정에서 정책의 투명성, 국민합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중산간지역 직불제는 WTO농업협정의 녹색정책(Green Box)에 해당되는 「지역정책」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음. 지급요건으로 생산활동과 연계하고, 지급대상을 경지면적을 단위로 하고 있으며, 쌀·맥류·대두 등의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다양한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실시하도록 지역지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 또 비용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첫째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단계에 실시상황을 점검하고, 정책효과를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3자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둘째 실시기간은 「5년을 단위로 반복」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실시과정에서 대상지역의 지정이 관심을 끄는 점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한 나머지, 지역지정에서 정치력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점이 문제로 예상됨.
- 고령화율, 경작포기율 등이 급격히 높아지는 중산간지역의 실태를 고려할 때, 직불제가 다면적 기능의 충분한 발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역실태에 적합한 종합적인 중산간지역대책을 마련하고, 또 대상범위를 현재의 90만ha에서 궁극적으로는 전농가로 확대하는 것이 향후과제임.

(김태곤 작성)

최근 미국의 가뭄과 쌀 수급 전망

1. 최근 미국의 가뭄과 농업 피해

- 중립종쌀을 제외한 1999년 7월 소맥,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가격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함.
 - 당시 곡물의 풍작이 예상되어 곡물재고량(곡물비축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됨.
 - 아시아 및 중남미로부터의 곡물 수입 역시 감소세를 나타내 곡물가격의 약세가 전망됨.
- 그러나 1999년 7월말부터 가뭄과 폭염이 미국 동부 옥수수 재배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가격이 오름세로 반전됨.
 - 동부지역의 강수량은 작년에 비해 200~450mm 낮은 수준이며, 이번 가뭄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8월말 현재 미국 농업부는 27개 주를 농업피해지역으로 지정하여 긴급저리자금의 대부 등 구제조치를 강구함.
 - 물이 부족한 11개 주에는 물 보전대책을 위하여 약 1,420만달러를 제공하고 피보험작물 이외의 작물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제공함.
 - 미 농업부는 가뭄에 대한 피해액을 농산물 수입의 감소와 추가적인 부담(사료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11억달러로 추산함(Agricultural Outlook, 1999. 8. 23).
- 가뭄 피해로 미국내 주요 곡물의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여 최근 CBOT에서 곡물의 선물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또한, 대두의 수확량이 크게 하향 조정(1999. 8. 12) 등 부정적인 전망이 가세하면서 곡물가격이 상승하였음.
 - 미국시장에서 주요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공급부족이라기 보다는 가뭄으로 수확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주장도 있음. 가뭄이 수확기인 가을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면 곡물가격은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관점임.

- 미국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향후에도 가뭄이 지속되어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와 일시적인 가뭄으로 가격이 상승되었으나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 곡물 생산은 자연적인 요인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관련 제도의 마련과 정비가 필요할 것임.

2. 미국의 쌀 수급 전망

- 미국의 1999/00 미국의 쌀 생산량은 조곡기준 9,621천톤으로 1998/99 대비 12.9% 늘어날 전망이어서 생산량은 기록적인 수준이 될 것임.
 - 장립종 쌀은 6,423천톤, 중·단립종 쌀은 2,785천톤으로 전망
- 쌀 재배면적은 1998/99년에 1,354천ha로 추정되고 이중에서 수확면적은 1,342천ha로 전망됨.
 - 쌀 재배면적 중에서 장립종 1,064천ha, 중·단립종 287천ha로 장립종이 약 80%를 차지함.
 - ha당 단수는 중·단립종이 7.339톤으로서 장립종의 6.086톤보다 약 20%로 높은 수준임.
- 미국의 주요 쌀 생산지역은 캘리포니아, 아칸사,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미주리, 텍사스주 등임. 아칸사,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미주리, 텍사스주는 주로 장립종 쌀을 생산하며, 캘리포니아주는 대부분 중·단립종 쌀을 생산함.
 - 조곡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쌀 생산량은 1,982천톤, 아칸사 4,350천톤, 루이지아나 1,374천톤, 미시시피 785천톤, 미주리 358천톤, 텍사스는 767천톤으로 전망됨.

미국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재배면적 (천 ha)	수확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장립종				
1993/94	851	821	5.696	4,677
1994/95	975	963	6.287	6,051
1995/96	945	936	5.901	5,520
1996/97	803	796	6.475	5,153
1997/98	942	933	6.042	5,647
1998/99(추정치)	1,064	1,055	6.086	6,423
1999/00(전망치)	-	-	-	-
중·단립종				
1993/94	331	326	7.386	2,404
1994/95	382	379	7.695	2,917
1995/96	318	316	7.482	2,363
1996/97	340	339	7.763	2,631
1997/98	323	321	8.259	2,654
1998/99(추정치)	290	287	7.339	2,096
1999/00(전망치)	-	-	-	2,785

자료: USDA, Rice Outlook, RCS-0999, Sep. 13, 1999.

주: 면적은 acre를 ha, 단수는 pound를 톤, 생산량은 cwt를 톤으로 환산한 것임.

- 기초재고량, 생산량과 수입을 포함한 총공급량은 1999/00년도에 11,054천 톤으로 전망됨.
 - 기초재고량은 943천톤으로 이 중에서 장립종 쌀은 630천톤이고 중단립종 쌀은 313천톤인 것으로 전망됨.
 - 수입량은 489천톤으로 대부분 장립종 쌀을 수입할 전망이다. 중·단립종 쌀의 수입량은 1995년 이후 54천톤 수준으로 변함이 없음.
- 국내소비량이 5,125천톤이고 수출량이 3,855천톤으로 전망되어 총소비량은 8,981천톤이 될 전망이다.
 - 전년 대비 장립종 쌀의 국내소비와 수출량은 감소될 전망이지만 중·단립종 쌀의 국내소비와 수출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 장립종의 수출은 전년대비 3.4% 줄어든 3,084천톤으로 전망되나 장립종은 17.2% 늘어난 777천톤으로 전망됨.
- 1999/00 기말재고량은 장립종 1,506천톤과 중·단립종 567천톤을 합한 2,073천톤으로 전망됨. 1998/99년도의 943천톤에 비하여 무려 120%가 늘어날 전망이다.
- 장립종의 기말재고량은 630천톤에서 1,506천톤으로 중·단립종은 313천톤에서 567천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장립종 쌀의 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 기말재고량의 증가로 쌀 재고율이 올라갈 전망이다. 장립종의 재고율은 9.2%에서 23.5%로 중·단립종은 13.2%에서 21.9%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 과거 중·단립종의 재고율은 2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8/99년도 재고율의 감소로 급격한 국제가격 상승을 초래함. 1999/00년도에는 평균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3. 세계 쌀 시장 현황

- 1999/00년도 세계 쌀 생산량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의 생산증가로 전년대비 1.3% 늘어난 3억 9,200만톤, 소비량도 1.3% 늘어난 3억 9,360만톤 수준임. 소비량이 생산량을 160만톤 상회할 전망이다.
-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5,050만톤 수준으로 전망됨으로써 재고율도 13.4%에서 12.8%로 하락할 전망이다.
- 세계 쌀 수급상황은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하고 재고율도 내려갈 전망이나 재고량이 5,000만톤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어서 1999/00년도의 세계 쌀 수급 상황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님.

미국 장립종 쌀 수급 전망 (조곡기준)

단위: 천톤

	1994/95	1995/96	1996/97	1997/98	1998/99 (추정치)	1999/00 (전망치)
기초재고량	685	653	458	640	658	630
총공급량	7,022	6,459	6,010	6,650	7,502	7,902
생산	6,051	5,520	5,153	5,647	6,423	6,836
수입	286	286	395	363	422	435
총소비량	6,368	6,001	5,371	5,992	6,872	6,396
국내소비	2,726	3,057	2,808	2,717	3,674	3,311
수출	3,642	2,944	2,563	3,275	3,198	3,084
기말재고량	653	458	640	658	630	1,506
재고율(%)	10.3	7.6	11.9	11.0	9.2	23.5

자료: USDA, Rice Outlook, RCS-0999, Sep. 13, 1999.

주: 생산량은 cwt를 톤으로 환산한 것임.

미국 중·단립종 쌀 수급 전망 (조곡기준)

단위: 천톤

	1994/95	1995/96	1996/97	1997/98	1998/99 (추정치)	1999/00 (전망치)
기초재고량	457	717	649	549	558	313
총공급량	3,402	3,152	3,316	3,257	2,717	3,152
생산	2,917	2,363	2,631	2,654	2,105	2,785
수입	50	54	54	54	54	54
총소비량	2,685	2,508	2,767	2,694	2,404	2,585
국내소비	1,842	1,687	1,774	1,964	1,746	1,814
수출	844	821	998	730	658	771
기말재고량	717	649	549	558	313	567
재고율(%)	26.7	25.8	19.9	20.7	13.2	21.9

자료: USDA, Rice Outlook, RCS-0999, Sep. 13, 1999.

주: 생산량은 cwt를 톤으로 환산한 것임.

4. 시사점

- 국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단립종 쌀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등의 생산량이 약간만 변해도 국제가격은 큰 폭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곡물자급률이 약 30%에 불과하여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최근의 곡물폭등과 같은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식량비축제도의 운영과 식량공급체제의 정비가 필요함.
- 식량비축제도의 운영체계 근거 마련
 - 쌀, 소맥(식량용), 대두(식량용), 사료곡물의 적정비축수준 산정과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긴급시 곡물의 가격과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
 - 민간 유통재고의 파악 체계 확립과 적정 민간 재고량 유지
- 비상시 식량공급체계 정비
 - 긴급사태시 곡물, 서류 등 생산전환체계 완비
 - 비상시 경작면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를 사전에 파악
- 보리, 밀 등 동계작물 생산 증대 추진
 -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상조치
 - 경영안정자금 신설

농업·농촌경제동향 1999 가을

찍은날 1999. 10. 15 펴낸날 1999. 10. 15

발행인 강 정 일

펴낸곳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문 원 사 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 업 관 측 센 터